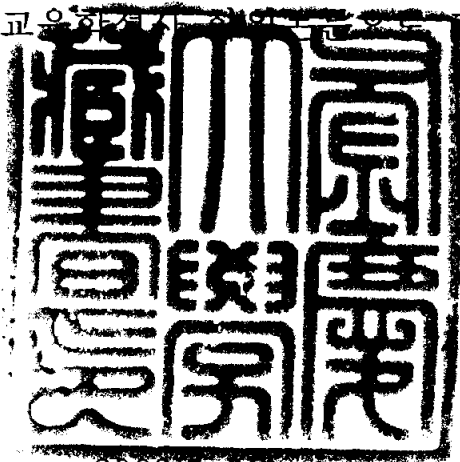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태권도경기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이 태 웅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6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체 육 교 육 전 공

송 필 철

송필철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3년 6월 일

주 심 행정학박사 권 혁 동



위 원 이 학 박 사 지 삼 업



위 원 체육학석사 이 태 응



목 차

Abstract	iv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II. 이론적 배경	
1. 태권도의 개념	5
2. 태동기 도장태권도의 현황	6
3. 태권도 탄생의 과정	15
4. 태권도 경기화과정	18
5. 태권도 경기의 세계화과정	23
 III. 세계태권도연맹(WTF)의 발전과정	
1. 세계태권도연맹의 창설	25
2. 세계태권도연맹의 지역연맹 결성	26
 IV. 태권도 경기대회의 발전과정	
1. 국제대회 공식종목의 채택	34
2. 세계태권도연맹주최 주요경기대회	37
3. 세계태권도연맹 역대주요대회	37

V. 경기규칙의 발달과정

- 1. 태권도 경기규칙의 제정 및 변천 46
- 2. 경기규칙 개정 및 세부내용 48

VI. 결론

- VI. 결론 68

- * 참고문헌 70

표 목 차

<표2-1> 태권도1세대 계보	7
<표2-2> 태권도 명칭의 변화	8
<표3-1> 주요 태권도경기대회	22
<표4-1-1> 세계선수권대회(남자)	37
<표4-1-2> 세계선수권대회(여자)	39
<표4-2> 아시아선수권대회	40
<표4-3> 월드컵태권도대회	42
<표4-4> 세계대학선수권대회	44
<표4-5> 국제군인선수권대회	45
<표5-1> 태권도의 경기변천과정	47
<표6-1> 목적	48
<표6-2> 경기장	48
<표6-3-1> 주심 위치	50
<표6-3-2> 부심 위치	51
<표6-3-3> 주심 임무	52
<표6-4-1> 경기방식	54
<표6-4-2> 경기시간	56
<표6-4-3> 계체량	57
<표6-5> 경기진행 절차	59
<표6-6> 득점	62
<표6-7> 선수복장	66

The Study about the Porcess of Taekwondo development

Song Pil-Cheol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fundamental data for a Taekwondo competition event and aid in prospering the competition.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 have searched the development processes of World Taekwondo Federation (WTF), Taekwondo competition events, rules of Taekwondo, and so 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presence of 17 countries in, 1973 at Kukkiwon was held World Taekwondo Federation at which Kim Woon-Yong was selected as president and vice-president, secretary-general, and executives were appointed as well by Kim Woon-Yong. Moreover, by setting up an ideal of Taewondo competition and its rules the basis of the development of the competition was established.

Second, WTF takes charge of 170 member nations and the number of member nations is increasing continuously. There are 49 nations in Asia, 32 in Africa, 42 in Pan Am, and 47 in Europe in terms of regional number of members, and each of them spreads Taekwondo forming a regional federation holding a regional match.

Third, WTF strengthened the foundation of Taekwondo to be a competition match by joining GAISF in October in 1975. Accordingly, WTF had been approved as a formal competition federation so that Taekwondo was adopted as one of the official games in many international tournaments.

The historical major tournaments of WTF are world championship series,

Asia championship series, World Cup Taekwondo events, world university championship matches, international soldier championship matches, and so on.

Forth, WTF enacted the new competition rules on May 28, 1973 and made a contribution to activate Taekwondo competition amending 10 times of its rules by February 14, 2003. The rules were systematized as below.

The aim of the rules of Taekwondo competition lies on operating all Taekwondo competition events harmoniously and fairly by indicating the direction of the rules intentions.

The operational rules of Taekwondo competition stipulate how to operate the competition events logically so that they are the key of competition rules.

Taekwondo competition ground has the lines of competition area, caution, ending, and limitation, which leads to the improvement of Taekwondo players ability and safety.

It is stipulated that all the players must put on protectors specially designed for the games.

In this way with the founding of WTF, Taekwondo competition events have become globalized, and with the amendment of competition rules, the operation of competition have improved gradually, which made Taekwondo expand to be a world competition both nominally and virtually.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태권도는 몸의 움직임으로 표현되며 각 동작의 기술성은 진정한 철학적·도덕적·미학적 요소를 내면화하고 있다.

때문에 오늘날 태권도를 단지 무술·부예라는 범주에 두지 않고 인간의 보편적 이상(理想)으로서 무도·스포츠로 일컫고 있다.(2002, 이경명)

해방 후 일본에서 활동한 초창기 관장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공수도, 당수도를 보급한 것이 태권도의 시작이다. 그 후 6.25 동란까지 초보적 발전 단계를 거쳐 6. 25후에 시국의 안정과 더불어 점차로 일반인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하여 점차 수련생이 늘고 도장간의 교류가 이루어지자 1954년에 명칭을 태권도로 통일하고 1961년 9월16일에는 태권도협회의 명칭을 대한태수도협회로 개칭하였다가 1965년 8월5일 다시 대한태권도협회로 바꾸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1962년 6월20일 대한체육회의 경기단체로 대한태권도협회가 가입 승인을 받아 1962년 10월24일 제43회 전국체육대회에 시범종목으로 참가한 후 1963년 10월4일 제44회 전국체육대회부터 정식경기종목이 되었고 1965년 제1회 전국태권도신인선수권대회(1965. 4. 18), 1966년 제1회 전국중·고·대 종별개인선수권대회(1966. 7. 23), 1966년부터는 대통령기쟁탈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1966. 10. 28), 1968년부터는 주한 외국인 개인선수권대회(1968. 6. 16), 1970년부터는 전국 국민학교 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1970. 10. 24)와 함께 여자부 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가 개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태권도는 경기대회를 통하여 각계 각층으로 보급 확산되었고, 군

에서도 태권도의 우월성과 국방체육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수련종목으로 선정되었다.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들이 태권도 기술을 응용하여 실전에서 적을 제압함으로써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게 되었다.

1972년에는 태권도 중앙도장 겸 시합장으로서 국기원을 개원하고 1973년에는 세계태권도연맹(WTF: World Taekwondo Federation)이 창설되면서 명실공히 세계적인 스포츠종목으로서 각광받기 시작하였다.

세계태권도연맹 초대 총재로 추대된 김운용은 1973년 5월28일 국기원에서 17개국 대표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 집행부를 구성하여 태권도경기규칙 개정과 국제심판의 훈련 등 경기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하였다.

이로서 태권도는 해방을 전후한 카라테 유입이후 50년도 채 안된 짧은 역사에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국내 태권도유단자가 5,030,817명이나 되었고 해외에는 297,430명의(국기원 자료 2003. 5월) 유단자가 있으며 이들은 전 세계 지도자와 선수로서 태권도 보급에 활성화를 더하고 있다.

태권도의 세계적 보급을 보면 1963년 홍콩에 파견된 김복만, 송강용, 봉석근 등은 1,200여명의 수련자를 지도하였고 특히 송강용은 경찰서 학교 등 9개소 이상을 순회지도하기도 하였다. 또한 태국에서는 7명의 사범이 파견돼 600여명을 지도하였다.

1965년 터키에 들어간 조세범은 10개 도시에 19개 도장을 세워 수련자가 1,500명에 이르렀다.

아프리카에는 1968년 김영태가 아이보리코스트에서 17개 도장을 열어 3,500명의 수련생을 지도하였고 이를 발판으로 라이베리아,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등지에 태권도를 보급하였다.

1969년 의술 업무를 겸해 우간다에 파견된 김남석은 3,000여명의 수련자

를 길러 내었다.

유럽에서는 영국의 이기하, 프랑스의 이관영, 네델란드의 박종수, 이유선, 등과 독일의 권재화, 서운남, 김광일, 스페인의 조홍식, 최원철, 이원일, 스위스의 김명수 등이 1960년대 후반부터 활약한 초창기 멤버들이다.

특히 미국은 태권도 보급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월남 태권도 교관 출신 최태홍은 1972년 미국 서북부 오리건 주 포틀랜드로 건너가 1980년대 초에 직영도장과 40여 개의 지관을 갖게됐다. 당시 뉴욕과 워싱턴 등 미국동부에서 활동한 사범은 3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희일을 비롯하여 한차교, 박복만, 이종문, 박동근 등이 매우 활동적이었다.

당시 사회주의 국가와 아프리카 오지를 제외하고는 태권도가 보급되지 않는 나라가 드물었다. 이와 같이 태권도는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면서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국위선양과 아울러 국익을 도모하는데 주요 역할을 해왔다.

또한 태권도는 이러한 사범들의 역할에 힘입어 1970년대 세계태권도연맹이 창설이 되면서 태권도경기화에 주력하였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는 시범종목으로, 2000년 시드니올림픽과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서는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명실공히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돋움 하게됨으로써 태권도경기의 발전을 위한 연구가 더한층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도 태권도연맹은 태권도라는 단일종목에 2개의 단체가 있다. 즉 북한을 중심으로 한 40여 개의 회원국을 가진 국제태권도연맹(ITF)의 태권도와 한국을 중심으로 한 170개의 회원국을 가진 세계태권도연맹(WTF)이 아직도 통합된 경기대회를 갖지 못하고 평행의 길을 가고 있다. 설로 이 두 연맹이 갖는 태권도의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은 엄청나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세계태권도연맹의 활동과 각종 경기대회, 태권도 경기규칙의 발달 등 태권도경기의 발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태권도경기의 기초자료를 확립하고 이를 더욱 활성화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태권도경기의 발전과정을 통하여 1970년대의 태권도 경기화과정과 세계화과정을 다음과 같이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1973년 세계태권도연맹 창립총회의 결성과정과, 연맹결성의 목적, 경기의 이상 등을 규명해 보고 세계태권도연맹이 관장하는 170개의 회원국과 각 지역연맹의 태권도 보급과정, 지역연맹의 경기대회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 세계대회 공식종목의 채택과정, 세계태권도연맹주최 주요 경기대회, 역대 주요대회의 회수·연도·참가국·개최지·대회결과 순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2003년 2월 14일까지 10차례 개정된 경기규칙 내용을 연도별로 기술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선행연구 논문과 학술잡지 등의 문헌자료와 세계태권도연맹과 대한태권도협회 소장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그리고 태권도 원로의 면담 및 인터넷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태권도의 개념

월간태권도지 97년 7월 호에는 사실적 개념으로서 4가지로 나누고 있다. 즉 태권도 개념은 ① 인류 보편적 적수공권(赤手空拳)을 뜻하고 ② 한민족이 행해온 모든 맨손무술을 지칭하며 ③ 태권에 계승의식을 두고 결성된 무술을 의미하고 ④ 아마추어 경기태권도를 뜻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태권도는 외형적 행위적인 면과 내면적 규범적인 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외형적 행위의 개념으로서의 태권도는 한국무술(싸움·투기)로서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떨어져서 겨루며 타격방식이 발기술 위주로 이루어진 기예이다.

내면적 규범적 개념으로서 태권도를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은 도(道)라는 글자의 해석이다. 따라서 인간의 길로서 태권도에서의 도(道)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사회적 존재는 필연적으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야만 한다.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려면 공동체적 관습과 질서를 이해하고 직접 몸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태권도인 역시 사회생활을 해야만 하는 인간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길인 윤리를 외면할 수 없다. 특히 태권도처럼 폭력성이 강한 행위양식을 몸에 익힌 집단의 경우에는 보다 강한 윤리적 소양을 견지해야만 한다. 태권도는 바로 이런 윤리적 소양에서 힘을 바로 써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오늘날 태권도는 한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넘어서 범 세계적 신체육문화로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바야흐로 21세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윤리보다는 보편성을 갖는 윤리가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태권도인의 윤리는 이제 '우리 것'만을 강조하는 소아적(小我的) 태도가 아니라 범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를 근간으로 하는 대아적(大我的) 태도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보편윤리를 추구하는 태권도는 한국적 윤리와 동양적 윤리라는 전통적 틀을 모태로 모든 문화권의 인간이 따라갈 수 있는 범 세계화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2. 태동기 도장태권도의 현황

1940년대는 일본의 카라테가 한국에 유입되는 시기였으며 1950년대는 6.25전쟁 이후 태권도 지도자들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시기였다. 그리고 태권도의 명칭도 일본의 카라테를 배운 사람들과 중국의 북방무술을 익힌 1세대 사람들에 의해서 唐手道, 空手道,¹⁾ 花手道,²⁾ 拳法³⁾ 등의 명칭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양진방, 1986, p.12)

1) 唐手는 중국 남방계열의 拳法을 일본이 받아들인 '테(手)' (카라테) 명칭으로서 1908년 (明治4年) 10월, 카라테가 검도·유도와 같이 중학교의 커리큘럼으로 채택 된데서 시작됐다(하태은, 1999). 그 후 唐手が 空手로 명칭상 변모한 것은 적국의 명칭을 없애자는 국수주의적 사상으로 훈독에서 나오는 空手を 선호하며 1936년 오키나와에서 협의 회의한 결정으로 공식화된 명칭이다.(김용옥, 1990, pp.79~80)

2) 황기는 1945.11.9 부덕관 창설 후 '당수도'를 가르쳐 1949년 5월 花手道, 1953년 唐手道, 1960년도 6월 手搏道로 개칭하여 오늘까지 전해 내려옴(황기, 1970, p.676)

3) 拳法은 1946년 9월 윤병인이 기독교청년회의 권법부를 만들어 수련하면서 시작된 명칭이다.

이들은 나름대로 5개의 관 명칭을 정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이후 정도관, 한무관, 오도관, 강덕원 등의 신흥관(新興館)이 생기면서 과별이 조성되어 혼란을 야기시키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1947년 7월 청도관 이원국, 조선연무관 전상섭, 권법부 윤병인, 송무관, 노병직 등의 창설자들이 주축이 되어 몇 차례의 통합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한국전쟁 이후 단합과 통합의 의지로 협의구성은 지속되어 1950년 임시수도인 부산에서 『대한공수도협회』의 공식적인 첫 통합 조직단체를 발족했다.

<표2-1> 태권도 1세대 계보

관 명	창설자	창립연도	장 소	수 련 생
청도관	이원국	1944.9.15	서울 서대문구 옥천동 (영신학교 강당)	▶1기생(강서종 이용우 한인숙 전영택 민우식) ▶2기생(엄운규 현종명 손택성) ▶3기생(남태희)
부덕관	황기	1945.11.9	서울 용산역 부근 (철도국)	▶1기생(김운창 정창영 남삼현 최희석 홍종수 이복성 김인석 황진태 원용범 이강익 한영태) ▶2기생(백문구) ▶3기생(차수영 심상규)
지도관	전상섭	1946.3.3	서울 중구 을지로 (조선 연무관)	▶1기생(배영기) ▶2기생(김복남 이병로 정진영 김수진 박영근 홍찬진 박현정 이종우)
송무관	노병직	1946.6.5	개성(송도) 6.25이후 서울로 옮김	▶1기생(송태학 이희순 김홍빈 한상민 이희진 박영환) ▶2기생(조규상 강원식 홍영찬 이원석 조완원)
창무관	윤병인	1946.9.1	서울 종로구 (YMCA)	▶1기생(이창용 김주갑 이동국 하대영 김순배 박철)

그 후 1954년 12월 최홍회가 태권도 용어를 정하고 9월3일 태권도협회를 구성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공수와 당수를 주장하는 이견 차로 곧 해체되었고」⁴⁾ 1960년 황기가 문교부에서 사단법인으로 『대한수박도협회』를 등록하여 독자노선을 걷기 시작했다.

<2-2> 태권도 명칭의 변화

1945~1950	1950~1960	1961~1965	1965~ 현재
당수도 공수도 권 법	당수도 공수도 권 법 화수도 태권도	수박도 태수도 태권도	태권도

그러나 1961년은 5.16군사혁명으로 태권도계에 통합이(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령6호: 사회단체등록지시) 불가피해지자 1961년 7월12일 각 관 대표들이 모여 유합회의를 수 차례 걸쳐 가진 끝에 1961년 9월14일 이종우, 엄운규, 윤쾌병, 노병직, 이남석, 황기, 남태희의 주축으로 통합창립 7인 위원회를 결성 『대한태수도협회』⁵⁾를 정식 발족하게 되었다. 그 후 새로 발족된 태권도협회는 채명신 장군을 초대회장으로 선출하였고 다음 박종태를 2대 회장으로 하여 1964년 4월 3일부터 1965년 1월 14일까지 운영해 오다 최홍회에 의해 1965년 8월 5일 『대한태권도협회』로 다시 명칭을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4) 하태은 광복이후 군 태권도의 발전사 연구, 1999. pp.701

5) 대한태수도협회는 유파도장을 통합하여 구심점을 구축한 뒤 1962년 6월25일 경기단체로 대한체육회(한국 아마추어 경기단체 집합조직)에 가입하여 정식 경기단체로 승인을 받았고 동년 12월28일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승인되어 1963년 2월23일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육상, 축구 등에 이어 28번째로 가맹되었다(김명수,1972)

전쟁 후에는 태권도가 지방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내에서 수련을 시작한 2세대⁶⁾ 지도자들이 자리잡기 시작했으며 당시 수련내용은 10대 후반의 중고생을 주축으로 대학생 군인 경찰 등의 다양한 수련 층들이 겨루기(대련)보다는 품새(형)위주로 발전해 나아갔다.

태권도는 1950년대에 최초의 도장으로 설립된 청도관(1944년)을 포함하여 사설도장인 5개관(館)에서 지도를 하다가 점차 사설도장 외에 군·경·교도소에서도 태권도를 지도하게 되었다.

1970년대에 와서 태권도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사설도장도 1,300개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학교나 군·경 교도소의 지도도 늘어났다.

1970년대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여 1980년대 말에는 전국의 주요 도시와 읍, 면 소재지에도 태권도장이 개설되었다.

특히 1990년대 들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장간의 거리제한이 철폐되었고 2000년도에는 지도자 양성과정의 이수자가 증가함에 따라 도장의 과밀현상까지도 나타내고 있다.

태권도 기간도장(基幹道場: 母體館)은 1946년 2월27일 이원국(李元國, 당시 35세)에 의해 최초의 태권도장인 청도관(靑壽館)이 세워진 이후로 대한태수도협회와 대한태권도협회로 이어지는 태권도의 통합은 1973년 40여개로 난립되던 군소 도장(관)을 9개로 정비하였다.

1978년 8월 5일에 태권도 총 본관이 폐쇄되고 이어 1978년 10월5일 대한태권도협회 공문에 의해 각 관을 폐쇄하게 되고 태권도계는 통합이 되었다. 태권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초기 9대 기간도장(관)을 보면 다음과 같다.(강원식, 이경명, 1999)

6) 태권도 2세대는 1세대에게 태권도를 배운 사람들로 한국전쟁 이후 지도자로 변신하여 1960년을 이끌어가면서 태권도의 경기화를 꾀하였다. 대표적인 인물은 엄운규 이종우 이용우 현종명 이교운 김인석 배영기 오세준 홍종표 백준기 정진영 홍종수 김순배 이영섭 등이다.

1) 청도관(靑濤館)

해방 전까지 청도관이 서대문구 옥천동에 있던 영신학교 강당을 빌어 개관한⁷⁾ 것이 태권도 도장의 효시라 하겠다.

청도관(靑濤館)은 1944년 9월 서울 서대문구 옥천동에서 시작됐다고 하지만 정식으로 간판을 내걸고 전수를 시작한 시기는 1946년 2월27일부터가 정설이다.

당수도(唐手道) 청도관은 글자 그대로 ‘푸른 파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년기상과 활동력을 상징으로 삼았다.

청도관 창설자인 이원국(李元國)은 19세 때인 1926년에 일본(日本)으로 건너가 중·고교를 거친 뒤 일본 중앙대학 법학과에 진학하는데 이때 일본 공수도(空手道)의 본관(本館)인 송도관(松濤館)에 입문하여 공수도의 시조라 일컬어지는 『후나고시(船越)』 선생으로부터 카라테를 전수 받았다. 이곳에서 그는 송무관(松武館)의 창설자인 노병직(盧秉直)관장과 함께 카라테를 배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도관 출신으로는 유응준, 손덕성, 엄운규, 현종명, 민운식, 한인숙, 정영택, 강서중, 백준기, 우종립, 남태희, 고재천, 박근식, 김석규, 한차교, 조성일, 이사만, 이준구, 김봉식, 등이 있다.

청도관 분관(分館)으로는 인천을 중심으로 한 강서중의 국무관(國武館), 서울서대문구 이용우의 정도관(正道館), 광주 고재천의 청룡관(靑龍館)과 최홍희의 오도관(吾道館) 등이 있다.

1대 관장은 이원국(한국전쟁 당시 일본으로 밀항), 2대 관장은 손덕성, 3대는 엄운규이다. 청도관은 1970년대 초 중앙도장 국기원으로 통폐합되었다.

2) 조선연무관(朝鮮研武館: 지도관)

7) 유호정, 한국 태권도 발전의 사적 고찰, (상계서), p.30

지도관(智道館)은 1946년 3월3일 전상섭에 의해 『조선연무관 공수도부』로 출발하였다.

청소년 시절 유도(柔道)를 수련했던 전상섭은 일본 유학시절 카라테를 배웠는데 1943년 귀국 후 서울 소공동에 위치했던 유도학교 조선연무관에서 유도와 카라테를 가르치게 되었다. 그 후 해방이 되자 전상섭은 지체없이 『조선연무관』이란 간판을 내걸고 관원을 모집했다. 한국전쟁시 전상섭이 행방불명되면서 조선연무관은 사실상 해체되었는데 당시 지도사범으로 있던 윤쾌병(尹快炳)이 이종우와 명칭을 ‘지해로운 길’을 의미하는 지도관(智道館)으로 개칭하였다.

지도관 출신으로는 배영기, 이종우, 김복남, 박현정, 이수진, 정진영, 이교윤, 이병로, 홍창진, 박영근 등이 있는데 지도관은 특히 다른 관에 비해 대련(對練: 겨루기)을 중시하여 1970년대까지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승완, 조점선, 황대진, 최영렬 등이다.

지도관의 대표적인 분관은 이교윤의 한무관(韓武館)이며 초대관장은 전상섭, 2대 윤쾌병, 3대 이종우 등이다.

3) 무덕관(武德館)

무덕관(武德館)은 해방 직후인 1946년 서울 용산역 부근의 철도국에서 황기(黃琦)에 의해 『운수부우회 당수도부』로 출발했다.

황기 관장은 1935년 남만주 철도국에 입사해 그곳에서 국술을 수련했다고 주장하지만 황기관장의 무력(武歷)을 방증할 만한 사료가 없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무덕관 출신자로는 당시 수련생은 관번 1번인 김운창을 비롯 홍종수, 최희석, 유화영, 남삼현, 김인석, 이복성, 황진태, 원용범, 정창영, 이강익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철도국 직원이었다.

1955년 서울시 중구 동자동 서울역 부근에 무덕관 중앙본관을 신설한 황기는 그 해 전국에 9개의 지관(支館)을 신설하고 한중(韓中)친선 국제 당수도 연무대회를 개최했다.

1960년 무덕관은 1953년에 설립한 대한당수도협회(大韓唐手道協會)를 대한수박도회(大韓手博道會)로 개칭했다. 무덕관은 1965년 3월 김영택과 홍종수가 주축이 돼 황기를 제명하고 통합의 길을 걸었다. 그 후 이강익이 관장직을 맡았고 뒤이어 홍종수, 오세준이 맡았다.

무덕관은 기간도장 중 관세(館勢)가 가장 컸다.

4) YMCA권법부

창무관(彰武館)은 해방 후 경성농업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며 조선연무관에서 전상섭과 함께 무도를 가르치던 윤병인(尹炳仁)에 의해 1946년 서울 종로에 위치한 기독교청년회관(YMCA)에서 『YMCA권법부』라는 이름으로 창설되었다.

어린 시절 만주에서 '주안파'를 익힌 윤병인 관장은 해방직전 일본으로 건너가 유학생활동을 하면서 카라테를 배웠는데 무술의 경지가 높아 5단을 인정받는 것은 물론 일본인을 제치고 대학내 카라테부 주장을 맡았다. 당시 윤병인은 자신의 중국 무술을 보고 한눈에 매료된 카라테 창시자인 '도야마 간켄'과 서로의 무술을 교류하며 우의를 다졌다.

정통무도인으로 알려진 윤병인은 전쟁 중 행방불명되었고 YMCA권법부는 한국전쟁이 끝나자 윤병인의 제자 이남석이 김순배와 주축이 되어 창무관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창무관은 영창고등학교의 '창'자와 무도인의 '무'자를 합해 명명(命名)한 것으로 두 마리 용을 상징물로 삼았다.

YMCA권법부 출신으로는 이남석, 김선구, 홍정표, 박철희, 박기태, 김주

갑, 송석주, 이주호, 김순배 등이 있다.

한편 2대 관장인 이남석, 3대 관장을 지낸 김순배와 뜻이 맞지 않았던 홍정표, 박철희는 창무관을 떠나 1956년 서울 신설동에 『강덕원(講德院)』을 개관했다

5) 송무관(松武館)

송무관은 1946년 노병직(盧秉直)이 개성에서 정식으로 간판을 내걸었다. 노병직 관장은 청도관 창설자인 이원국과 일본 유학생 시절 송도관(松濤館;쇼토칸)의 후나고시 선생 밑에서 함께 카라테를 배웠다. 해방직전 고향인 개성에 돌아온 그는 당시 군사장(활터)이었던 관덕정에서 젊은이들에게 심심풀이로 카라테를 가르친 것이 송무관을 창설한 계기가 되었다. 노병직 관장은 수련생들에게 반드시 1백번 이상 권고대(주먹단련대)를 치게 한 다음 본격적으로 지도했는데 4급 이상이면 꼭 실전대련을 시켰고 추운 겨울에는 모한수련(冒寒修練)을, 더운 여름엔 모서수련(冒暑修練)을 실시했다. 송무관은 이회순, 이영섭, 김홍변, 한상민, 송태학, 이회진, 조규창, 홍영찬, 강원식, 등 많은 사람들을 배출했지만 기간도장 중 관세가 가장 미약했다. 초대관장은 노병직이며 2대 이영섭, 3대는 강원식이다.

6) 오도관(吾道館)

오도관은 군(軍) 장성 출신의 최홍희(崔泓熙)와 남태희(南太熙)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최홍희가 1954년 제3군단에 배속되어 있던 용대리 본부에서 오도관을 창설하기까지는 부관 남태희의 역할이 컸다. 남태희는 해방직후 청도관에 입문 이원국으로부터 당수도를 배운 뒤 1947년 육군통신학교에서 당수도를 가르친 것이 계기가 되어 군과 인연을 맺었는데 1953년 제주도 보병 제29

사단에 있던 최홍희장군과 만났다.

오도관에는 남태회를 비롯하여 백준기, 한차교, 우종립, 고재천, 김석규, 곽근식 등 청도관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지도사범도 손덕성, 현종명 등 청도관 출신이 주류였다. 현종명은 1954년부터 10년간 오도관 관장직을 맡았다.(당시 최홍희는 명예관장)

1955년 태권도란 명칭을 창안해낸 최홍희는 우여곡절 끝에 이승만 대통령의 휘호를 받아내어 본격적으로 전군(全軍)에 태권도를 보급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오도관은 월남전쟁으로 1960년대 초부터 태권도 교관단이 파견된 것을 계기로 민간도장과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관세(館勢)를 확장시켜 나갔다. 현종명, 곽병오, 백준기 등이 차례로 관장직을 맡았다.

7) 강덕원(講德院)

강덕원은 한국전쟁 직후 어수선했던 시기인 1956년 YMCA권법부에서 수련한 홍정표와 박철희 두 사람에 의해 창설되었는데 초대관장은 홍정표였다. 강덕원이 창설된 근본적인 배경은 YMCA권법부 창설자인 윤병인 관장이 납북된 이후 권법부를 재건하려던 이남석, 김순배와의 갈등으로 파생되었다. 1956년 서울 신설동에 도장을 마련한 강덕원은 배플 ‘강(講)’ 큰 ‘덕(德)’자를 써서 『덕을 가르치는 집』을 표방했다.

강덕원은 50년대 중반에 창설된 신생관(新生館)이어서 규모는 크지 않았다. 초창기 관원은 이금홍(현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총장)과 후일 대한태권도협회 5대 회장을 맡아 태권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김용채를 비롯 이정후, 이강희, 한정일, 김병수, 지승원, 임복진 등이다.

강덕원은 서울 창신동 청진동 서대문-서울운동장 서대문로터리 등으로 도장을 옮기다가 이금홍이 3대 관장으로 부임하면서 인사동으로 이전하여 정착하였고 현재 강덕원무도회(강무회)로 계승되어 오고 있다.

8) 한무관(韓武館)

1956년 8월 이교윤 관장이 창설한 한무관은 50년대 중반부터 생기기 시작한 신생관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다. 당시 권투, 유도, 레슬링, 역도, 펜싱 등을 가르치는 종합체육관이었던 한국체육관의 부관장인 이상묵의 허락을 얻어 당수도를 가르친 이교윤은 1년만에 2백명 이상의 수련생을 확보했는데 이 과정에서 지도관 관장이던 이종우와 갈등이 증폭되자 이상묵의 제의로 지도를 중지하게 되었다. 그 후로 이교윤은 서울 종로구 창신동 강문고등학교 뒷편 공터에 한무관 간판을 내걸고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되었는데 이것이 한무관이 생기게 된 발판이 되었다. 1969년에는 중앙도장을 서울 왕십리에 개관하였다.

9) 정도관(正道館)

정도관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정도관 출신인 이용우에 의해 서울 서대문 로터리에 중앙본관이 개관되었다.

정도관은 모체관인 청도관과 이렇다 할 마찰없이 관을 개설했다는게 다른 신생관의 파생과정과 다른 점이다.

‘나는 땃땃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무도인이다’라는 관훈의 정도관은 1960년대 중반부터 마산, 울산, 창원, 목포, 김제 등지에 지관을 개관하며 관세를 확장해나갔다.

정도관의 초창기 수련생으로는 장용갑, 김재기, 김기동, 오부웅, 주계문, 박태현 등이고 그 뒤를 이어 박경선, 심병구, 김명환, 김학근, 전영근, 전선용, 이종오 등이 있다.

3. 태권도 탄생의 과정

한민족의 고무예인 수박, 권법, 택견에 관한 선행연구논문과 여러 자료들에서 태권도가 한민족의 고무예와 동일선상에서 발전된 과정은 찾을 수가 없다.

결국 태권도의 변천은 해방전후와 6·25 이후의 태권도 도장이 그 근간이 될 것이다.

송덕기는 13살 때부터 임호로부터 택견을 배우기 시작했으니⁸⁾ 태권도의 전통무예인 택견을 전수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택견을 현대의 태권도사적 관점에서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임호, 장칼이란 별명의 두 사람이 있었던 듯하며 이 당시에는 누상동, 누하동, 필운동, 사직골 등의 사람들이 택견으로 힘을 겨루었다고 전한다.

1958년 3월26일 이승만 전대통령의 생신에 누하동에 살던 임호의 제자인 송덕기와 김승환이 시범을 보였고 후에 송덕기의 제자인 신한승과 몇 차례에 걸쳐서 택견을 공개했다.

따라서 일제시대에는 임호, 장칼을 필두로 임호의 제자 송덕기와 10명, 송덕기의 제자 신한승, 임창수와 8명 정도가⁹⁾ 정통 태권도의 계보라면 해방을 전·후하여 귀국한 일본 유학생에 의해서 일본의 카라테가 보급되면서 크게 양대 계파로 나누어질 수 있다.

광복을 전후하여 일본에서 대학서클을 중심으로 손쉽게 가라테와 접한 한국 유학생들이 속속 귀국하였다.

도입 초기 카라테의 보급은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기존 체육 시설이 수련 장소로 이용되었다.

카라테의 수용 및 정착과정에서 자신의 무술이 순수한 카라테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통무술인 택견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8) 이석호, 살아있는 택견인 송덕기옹(상계서), p.29.

9) 송덕기, 박종관, 전통무술 택견(상계서), p.22.

주장이 제기 되기도 했다. 즉 오늘날 우리들이 태권도라고 부르는 현대 무술의 뿌리는 일본의 카라테 뿐만 아니라 전통무술 택견이라는 것이다.

5대 기간 도장을 설립했던 1세대 지도자들 가운데 택견에 대해 견해를 밝힌 이는 황기였다. 그는 『택견은 체계가 없으며 하나의 공방법(攻防法)에 불과한 술법이지 정신적인 면에 치중하지는 않았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특히 족기에 있어서는 다대한 교훈을 받았고, 그 모체가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¹⁰⁾라고 하여 근대 태권의 형성에 택견의 영향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최홍희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택견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발에만 치중하던 택견이 일제시대에 와서 중국의 권법 또는 일본 당수의 수기를 가미하여 기술적으로 발전한 것은 사실이다』¹¹⁾라고 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러한 기술종합이 자신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즉 『내가 선택한 무술은 신라에서 기원한 택견과 주로 손의 기술에만 의존하던 카라테를 종합 연구하여 오늘날의 태권도를 발전시켰다고 주장하였다』.¹²⁾ 그러나 황기가 1950년 화수도라는 이름의 무술을 만들었을 때나 최홍희가 1954년 태권도라는 이름의 무술을 창안했을 때 이들의 기술체계 속에는 택견의 기술이나 기술용어들에 대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고 택견의 기술을 수용했던 과정이나 방법도 보이지 않았다.

택견의 기본기인 품밟기와 활개짓에 설명도 나타나 있지 않았다. 반면에 이들의 기술체계와 이론은 당시 일본 카라테 지도서에 나타난 내용과 비교하면 대동소이했다.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형 역시 전적으로 평안·철기·카라테(唐手 또는 空手)에서 화수도와 태권도로 바뀌었을 뿐이었다. 이

10) 황 기, 수박도 교본, p.41

양진방, 해방이후의 한국 태권도의 발전과정과 그 역사적 의의, p.16. 再引.

11) 최홍희, 태권도 교본, p.41

12) 최홍희, 태권도 지침, p.13

러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태권도가 전통무술 택견과 일본무술 카라테를 종합하여 형성된 것이라는 황기와 최홍희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따라서 일본에서 건너온 카라테가 초기 태권도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최홍희는 1955년 명칭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신이 제안한 태권도를 채택하려고 하였으나 각 계파들이 통합된 조직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명칭의 문제가 대두되어 공수·당수를 주장하는 측과 태권을 주장하는 측과의 마찰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타협의 산물로 결정된 태수도가 1961년부터 1965년 8월까지 사용되었고 1965년 1월 최홍희가 대한태수도협회의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면서 1965년 8월5일 자신이 창안한 태권도로 바꾸었다. 따라서 협회의 명칭도 대한태권도협회로 개칭하여 지금까지 쓰고 있다¹³⁾

한편 1970년대 태권도 지도자들은 태권도가 국기로 채택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여 구체적으로 명칭의 개정, 기술의 변경, 기술용어의 개정 그리고 태권도사의 정립으로 나타났다.¹⁴⁾

4. 태권도의 경기화과정

태권도의 경기화에 대해서는 아직도 찬반 양론이 분분하다. 태권도 경기화에 대한 찬성론자들은 태권도가 경기화를 통해서 비로소 일본 카라테와 완전히 결별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품세를 주로 하고 겨루기를 객체로 했던 카라테와는 달리 태권도는 경기에서의 승부를 목적으로 함으로써 다양한 발기술을 개발하게 됐다는 것이다.

13) 김운용, 태권도,1, p.25

14) 양진방, 해방이후의 한국 태권도의 발전과정과 그 역사적 의의(상계서 pp.18~19참조)

특히 차기기술 중심의 득점제는 다양하고 화려한 발기술을 발전시켜 오늘날 태권도는 카라테와 비교할 수 없는 차기의 스피드, 파괴력, 화려함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실제 경기에서 거의 쓸모가 없는 방어술 대신 상대의 공격을 바로 맞받아 치는 테크닉이 발전되었다.

태권도의 본격적인 경기화는 1960년대 들어 이종우, 엄운규, 현종명, 이교운, 김인석, 배영기, 오세준, 홍정표, 홍종수, 김순배, 이영섭 등 태권도 2세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전에도 공수도 혹은 당수도 시절인 1949년 교통학교 강당에서 최초로 무덕관 연무회가 열리는 등 각 기간도장들이 해마다 연무 시범대회를 열어 수련생들이 기본동작과 형 격과 자유대련 등을 통해 위력과 기술을 과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1962년 10월24일 시험적인 경기를 갖기 시작한 태권도가 제43회 전국체육대회(대구)에서 처음으로 시범종목으로 참가했고, 1963년 10월4일 제44회 전국체육대회(전주)부터는 정식종목으로 출전하였다.

그 당시 체급은 플라이급(fly)부터 헤비급(heavy)까지 7체급의 개인전을 실시하였고, 기술의 정도에 따라 중기부(1~2단)와 구기부(3단이상)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경기화의 흐름을 가속화하자 태권도의 무도적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한 1세대들의 반대움직임이 거셌다.

최홍희는 태권도의 경기화는 기술의 3대 요소인 형과 대련, 격파 중 대련만으로 승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불합리하며 시합할 때 착용하는 호구가 기술을 완전히 발휘할 수 없게 할 것이며 호구를 착용한다면 태권도의 성질상 방어가 즉 공격일 뿐만 아니라 전신이 급소이며 또한 공격부위이기 때문에 어떤 제한된 급소에만 착용할 것이 아니라 전신에 착용해야 할 것이니 그렇게 된다면 대련 본연의 기술도 발휘하기 어려움은 물론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결함이 있다고 했다.

▷ 호구자체의 중량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으며 몸이 가벼운 사람에게는 오히려 큰 짐이 될 것이다.

▷ 공격부위가 제한된다. 예를 들어 칼러브를 꺾다고 할 때에 수도나 관수 혹은 기타 손의 부분을 쓸 수 없게 될 것이다.

▷ 호구 때문에 맞거나 때려도 감각이나 반응이 거의 없게 되므로 단련의 필요성이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가령 쌍방이 서로 호구를 착용했을 경우 아무리 강하게 때리고 찬다 하더라도 실제로 반응은 전혀 볼 수 없을 것이다.

정확성이나 속도는 거의 무의미하게 됨은 물론 태권도 특유의 뛰며 차는 기술은 발휘할 수 없다.

따라서 태권도는 문자 그대로 손과 발을 단련하여 고도의 기술과 위력으로 상대를 일격에 무찌를 수 있는 것이므로 호구를 착용한 대련 하나로서 모든 실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인 바 다음과 같이 형, 대련, 격파 및 특기 등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채점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 형을 통하여 무용이나 체조에서와 같이 균형과 미를 채점할 수 있다.

△ 대련을 통하여 사격술이나 궁술에서와 같이 정확도와 속도를 채점할 수 있다.

△ 격파를 통하여 실지의 위력을 채점할 수 있다.

△ 특기를 통하여 고도와 광도 혹은 기타 묘기를 채점할 수 있다.

수박도 대감의 주창자 황기는 무술이란 원래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시합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경기화를 하게되면 무도정신이 무너지고 단이며 급 제도가 불필요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밖에도 경기화가 결국은 태권도의 무도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해외 및 국내에서 도장을 운영하는 일선 사범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궁극적으로 종주국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반대론이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경기화에 열심인 2세대들은 1세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65년 전국태권도신인선수권대회, 1966년 전국 중·고·대 종별개인선수권대회, 대통령기쟁탈 전국태권도대회를 잇따라 창설하는 등 오히려 박차를 가했다.

당시 대회는 주로 단체전으로 벌어졌는데 1팀에 6명씩(선봉 전위 중견 후위 주장 후보) 출전해 실력과 체급에 관계없이 오더에 따라 시합하는 형식이었다.

최초의 경기 규칙은 1962년 11월 3일 제정되었는데 경기장은 8m×8m 장방형 마루바닥이었고 심판원은 6단 이상 고단자로 구성되어 배심원 2명, 4단 이상 보유자인 주심 1명, 부심 4명 등 7심제로서 12개 사항의 『주의』와 4개 사항의 『감점사항』이 있었다. 특점은 정확한 가격에 의한 1점제였다. 상대의 발길을 걸어 넘기는 행위는 점수는 되지 않았지만 감점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차 들어오는 상대의 발을 걸어 넘기는 것이 유효한 전략의 하나로 여겨져 부상자가 속출하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발 쓰기가 위축되는 현상도 벌어졌다.

또 1960년대 초에는 輕量級(56kg 미만), 中量級(56kg~62kg), 重量級(62kg~68kg), 無制限級(68kg이상)으로 체급을 나누고 이를 다시 선수들의 기술수준에 따라 초기부(3급~초단), 중기부(2단~3단), 고기부(4단~5단)로 나누어 시합을 벌렸다.(1963년 8개 체급으로 분류하고 중기부를 초단~2단, 고기부를 3단~4단으로 재조정)

이후 1966년부터는 대통령하사기쟁탈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가 개최되었고, 1968년부터는 주한외국인 개인선수권대회, 1970년부터는 전국 국민학

교 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와 함께 여자부 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가 개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1963년부터 협회의 종별선수권대회에 포함되어 있던 대학부를 1974년부터 대학태권도연맹과 국방체육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여 정식수련종목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발전되어 온 태권도는 점차 그 가치를 인정받아 ‘체력은 국력’이라는 정부의 국민체력향상 정책과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에 발맞추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태권도 경기대회의 변천을 보면 태권도의 경기대회는 무술의 연무·시범 형태로 시작되어 도장간의 경기를 거쳐 전국체육대회의 경기종목이 됨으로써 점차 겨루기 중심의 경기로 변화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경기규칙의 합리화, 안전보호구의 개발, 국제스포츠 기구와의 가입 등으로 국제화의 길을 걸어왔다. <표3-1 참조>

<표3-1> 주요 태권도경기대회

일 시	대 회 명	개최장소
63. 10. 4	제44회 전국체육대회	전북 전주
65. 4. 18	제1회 전국 태수도 신인선수권대회	한국체육관
66. 7. 23	제1회 전국 중·고·대 종별 개인선수권대회	한성여고
66. 10. 28	제1회 대통령기쟁탈 전국태권도대회(단체전)	장충체육관
68. 6. 16	제1회 주한 외국인 개인선수권대회	장충체육관
70. 10. 24	제1회 전국 국민학교 태권도선수권대회	한성여고
72. 6. 17	제1회 소년 스포츠대회	인창고
73. 5. 25	제1회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	국기원
74. 9. 6	제1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국기원
80. 11. 14	제1회 국제 군인태권도 선수권대회	대북시립체육관
81. 7. 29	제1회 월드게임	미국

일 시	대 회 명	개최장소
86. 7. 3	월드컵 태권도 대회	미국
86. 9. 30	제10회 아시안게임	성대체육관
86. 11. 29	제1회 세계 대학태권도 선수권대회	미국
87. 8. 9	제10회 팬암 게임	미국
87. 10. 7	제1회 여자 세계선수권대회	스페인
88. 9. 17	제24회 서울 올림픽대회(시범경기)	장충체육관
90. 1. 6	센트럴아메리칸스포츠게임	온두라스
90. 9. 30	제11회 아시안게임	서울
90. 12. 4	제4회 사우스아메리칸게임 정식종목 채택	페루
91. 9. 21	제4회 남아프리카게임에 정식종목 채택	
92. 8. 3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대회(시범경기)	스페인,바르셀로나
92.	제1회 태권도한마당	한국
93. 4. 27	제12회 볼리바리안스포츠게임 정식종목 채택	필리핀 마닐라
94. 7. 24	제3회 굿월게임 정식종목 채택	리시아 세인트
94. 10. 8	제12회 아시안 게임	일본 히로시마
95. 8. 17	제10회 사우스퍼시픽게임 정식 종목 채택	타이티
98.	제1회 세계무도태권도대회	충청대학
98. 12.7	제13회 아시안게임	방콕 태국
99.	제2회 청소년 태권도문화축제	충청대학
99. 12	제8회 태권도한마당	국기원
99. 12	'99 밀레니엄 월드대학태권도문화체험 축제	경문대학
2000. 9	제26회 시드니 올림픽대회(정식종목)	호주
2002.	제14회 아시안게임(정식종목)	부산

5. 태권도 경기의 세계화과정

1960년대 초부터 약 10년 동안 국내에서 꾸준히 성장한 태권도경기는 1970년대에 이르러서 태권도경기의 세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태권도가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어 경기화됨으로써 한국의 태권도가 일본의 카라테와 다른 유형으로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경기단체를 통하여 태권도인들을 조직적으로 묶을 수 있었다.

이때까지 유럽의 경우는 태권도가 유도연맹에 속해있는 등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태권도 경기가 국제적인 인정을 받는 스포츠로서 성장해 감에 따라 각 국에서 태권도를 독립된 스포츠로서 취급하려는 움직임이 생기게 되었다.

이처럼 태권도는 국외적으로도 한국태권도가 일본의 카라테와 다르며 스포츠로서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대한태권도협회는 1973년 5월2일 제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1973년 세계태권도연맹(WTF: World Taekwondo Federation)이 서울에서 결성됨으로써 태권도의 세계화는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세계적인 스포츠로서 태권도가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던 것은 1975년의 국제경기연맹(GAISF: General Assembly of International Sport Federation)에의 가입이라고 할 수 있다.

태권도가 국제경기연맹(GAISF)에의 가입과 성공이 갖는 의의는 태권도가 스포츠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받게 되었다는 점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국제경기대회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이러한 세계화과정 속에서 KTA(Korea Taekwondo Association)와 세계태권도연맹에의해 천명된 태권도의 본질은 역사적으로 『택견』에 기술적으로는 『차기』에 양식상으로는 『경기』에 그 중심이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세계화단계에서 태권도가 한국에 유입된 일본 당수를 극복한 보다 한 단계 위의 현대화한 수준의 것으로 직접적으로 전통무술의 본질을 회복한 무술로서 세계속에 나타나게 된 것이라 하겠다.

1970년대 이후의 경기태권을 중심으로 한 세계태권도의 주도는 태권도를 일본의 공수도와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으로서 스포츠로서 보다 더 세련된 것으로 한국태권도를 세계 속에 나타내 보이게 했다.

Ⅲ. 세계태권도연맹(WTF)의 발전과정

1. 세계태권도연맹의 창설

1973년 5월28일 국기원에서 17개국(콜롬비아·필리핀·홍콩·과테말라·대만·미국·크메르·멕시코·아이보리코스트·말레이시아·오스트리아·싱가포르·한국·독일·우간다·부르네이·일본)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태권도연맹 창립총회가 열려 태권도가 세계적인 경기대회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초대 총재에 대한태권도협회 김운용회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되었다.

이날 창립총회는 새로 만든 18조 3항의 규약을 통과시켰고 제2회 세계선수권대회 개최지를 서울로 정하고 1975년에 개최기로 결의했다.

이날 총회는 싱가포르가 1974년에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를 호주에서 열자는 발의에 대해서는 실행위원회에서 결정기로 위임했고 아울러 4년 임기의 세계연맹의 부총재 3명, 사무총장 및 실행위원 선임을 총재에게 위임했다.

4년 임기의 초대집행부 명단은 다음과 같다.

▷부총재 : 로랜드 데마르코(미국), 레오 바그너(서독), 김명희(한국)

▷사무총장 : 이종우(한국)

▷실행위원 : 존 M머피(미국), 막스 하인즈(서독), 토레스 나바레트(멕시코), 웅커 나자르딘(말레이시아), J. A 에티마(우간다), 장위국(대만), L 라코스트(프랑스), 차아트 우스칸(터키), 박건석, 박무송, 노병직, 엄운규, 이남석, 홍종수 (이상 한국), 탕 치 유엔(싱가포르) 등이다.

세계태권도연맹 규약은 모두 25조 85문항으로 명문화되어 있는데 연맹 결성의 목적은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태권도는 고유한 한국문화의 소산이다. 본 연맹을 조직함은 그 고유의 태권도는 정신과 더불어 태권도를 전 세계적으로 올바르게 보급하는데 있다. 그리고 '태권도 경기를 통해서 빠르게, 강하게, 정확하게를 경기의 이상으로 추구한다'고 되어있다.

세계연맹의 본부는 한국 서울에 영원히 둔다는 명시와 영어 불어 독어 서반어 한국어를 공용어로 하고 있다.

임원은 총재 1인, 부총재 5인, 사무총장, 재무위원을 각 1인, 집행위원 19명 및 감사 2인으로 정하고 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총회는 매 2년마다 개최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연맹은 아시아, 아프리카, 팬암, 유럽연맹 등 4개 연맹을 두고 집행위원회는 그 보조 기관으로서 기술위원회, 심판위원회를 비롯하여 12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2. 세계태권도연맹의 지역연맹 결성

현재 세계태권도연맹은 170개 회원국¹⁵⁾을 관장하고 있는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아시아 (49개국)

Afghanistan, Australia, Bangladesh, Bhutan, Brunei, Cambodia, China, Chinese Taipei, Fiji, Guam, Hong Kong, India, Indonesia, Iran, Japan, Kazakhstan, Korea, Kyrgyzstan, Laos, *Macao, Malaysia, Mongolia,

15) 2002년 10월16일 기준

Myanmar, Nepal, New Zealand, Pakistan, Philippines, Singapore, Solomon Islands, Sri Lanka, Tajikistan, Tahiti, Thailand, Tonga, Turkmenistan, Uzbekistan, Vietnam, Western Samoa.

▷ 아프리카 (32개국)

Angola, Benin, Burkina Faso, Cape Verde, Cameroon, Central Africa, Chad, Cote d'Ivoire, Congo, Equatorial Guinea, Egypt, Ethiopia, Gabon, Guinea, Ghana, Kenya, Lesotho,*Liberia, Madagascar, Libya, Madagascar, Mali, Mauritius, Morocco, Niger, Nigeria, Senegal, Somalia, South Africa, Swaziland, Togo, Tunisia, Zimbabwe.

Provisional member(2) : Liberia(Nov 16, 2001) Macao(April 29, 2002)

*Membership suspended(2) : Libya(Jan. 1, 2001), Grenada(Jan. 1, 2001).

▷ 팬암 (42개국)

Antigua & Barbuda, Argentina, Aruba, Bahamas, Barbados, Belize, Bermuda, Bolivia, Brazil, British Virgin Islands, Canada, Cayman Islands, Chile, Colombia, Costa Rica, Cuba, Commonwealth of Dominica, Dominican Rep., Ecuador, El Salvador, Grenada, Guatemala, Guyana, Haiti, Honduras, Jamaica, Mexico, Netherlands Antilles, Nicaragua, Panama, Paraguay, Peru, Puerto Rico, St. Lucia, St., Kitts & Nevis, Surinam, St. Vincent & the Grenadines, Trinidad & Tobago, Uruguay, U.S.A., U.S. Virgin Islands, Venezuela.

▷ 유럽 (47개국)

Albania, Andorra, Armenia, Austria, Azerbaijan, Belarus, Belgium, Bosnia & Herzegovina, Bulgaria, Croatia, Cyprus, Czech Rep.,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orgia, Germany, Great Britain,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lta, Macedonia, Moldova, Monaco, Netherlands, Norway, Poland, Portugal, Romania, Russia, San Marino, Slovak Rep.,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kraine, Yugoslavia.

▷ 준회원국 (11개국)

Bahrain, Iraq, Jordan, Kuwait, Lebanon, Palestine, Qatar, Saudi Arabia, Syria, U.A.E., Yemen.

1) 아시아태권도연맹

태권도 보급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동남아시아 국가는 말레이시아다.

이는 최홍희가 말레이시아 대사로 재임하던 시절 태권도를 적극 홍보했던 까닭도 있지만 1959년 국군태권도시범단이 대만 월남 등지에 시범단을 파견하여 시범을 보임으로써 태권도를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월남전을 계기로 국군 태권도교관단의 파견도 큰 몫을 하였고 점차 여러 국가로 확산됨에 따라 사범의 해외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63년 말레이시아에 우재림, 최창근, 김종찬 등이 건너가 태권도를 처음 소개했고 1965년 김창용, 1967년 장영호, 1969년 양우협 등이 잇따라 진출했다.

싱가포르는 1963년에 김복만이 첫 발을 디딘 이래 1964년 이기하, 1968년 이병무, 1969년 이준재, 1970년 한차교 등이 차례로 파견되었다.

싱가포르 태권도협회는 1974년 7월26일에 결성되었다.

홍콩에는 1966년 유영구, 최광조, 김복만 등이 먼저 진출한 뒤 1967년 한차교, 승강용, 봉석근, 등이 뒤따랐고 1970년에 남태희, 이종오, 정소영 그리고 1971년에 장성봉 등으로 이어졌다.

또한 대만은 1969년 노효영이 군 교관단으로 파견되었다.

태국은 1966년에 협회가 공식적으로 배영기, 박동근, 박병훈, 허문선, 김명수, 이완주 등을 처음 진출시킨데 이어 1968년에 김진성, 안석준, 김승곤, 김진우, 정유영, 1972년 송기영을 파견했고, 1973년에는 남성복, 정장근, 송찬희 등을 파견했다. 태국 태권도협회는 1977년 4월에 조직되었다.

필리핀은 1970년에 김복만 혼자서 진출하였고 1971년에는 박용만, 1973년에 이성수, 1975년 홍석천이 진출했다.

필리핀 태권도협회는 1976년 11월에 결성되었다.

터키는 1965년 조수세가 처음 진출해 기반을 닦았으며 1965년 인도에도 조희일, 김양길 등이 파견되었다.

1972년 이란 정부의 초청으로 김수련, 함광식, 김정훈 등 육군사령부 소속 교관단이 파견돼 보급되기 시작했다.

아시아태권도연맹은 1978년 9월7일 제3회 대회기간에 홍콩에서 결성되었다. 제1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는 1974년 10월18일 서울에서, 제2회 대회는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되었다.

2) 유럽태권도연맹

1960년도에 한국광산근로자가 독일에 파견됨으로써 서독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보급되었다. 남쪽 지역은 독일주둔 미국병사 조지 클라인과 마이클 앤더슨에 의해 처음 보급되었다.

1965년 한국 태권도 사절단의 이름으로 5명의 시범단 『한차교, 김창근, 박종수, 권재화 사범(단장 최홍희)』이 서독을 방문하여 뮌헨을 비롯한 몇

몇의 도시에서 시범을 보인 것이 태권도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여 1967년에 서울남, 이경명 등이 정식 사범으로 파견되었다.

1967년에는 이유선이 최초로 네덜란드에 태권도를 보급하고 이어 박종수가 진출했다.

영국에는 이기하, 프랑스에는 1969년 대한태권도협회의 추천으로 이관영, 이문호, 이탈리아는 1960년도에 유학생으로 진출한 박선재가 1965년부터 보급하기 시작했다. 스페인에는 1965년 마드리드에 조용훈이 진출했고 뒤를 이어 장이승, 김재원, 전영태, 이임선 등이 보급에 전력을 쏟았다. 포르투갈은 1970년 정선용이 진출해 개척했다.

1968년 이탈리아에 파견되어 있던 박선재가 사회주의 국가인 유고슬라비아에 처음으로 매년 몇 차례씩 드나들며 보급에 나섰고 폴란드는 1975년 서독에서 1970년에 오스트리아로 건너간 이경명이 보급에 앞장섰다.

1976년 5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제1회 유럽선수권대회가 개최됐고 동시에 유럽태권도연맹이 결성됐다.

연맹은 초대회장엔 독일의 하인즈 막스 그리고 한국사범으로 부회장엔는 이탈리아에 파견된 박선재를 선임하고 기술위원장에 오스트리아 사범 이경명을 임명했다.

제14회 유럽태권도선수권대회가 2002년 5월6일 터키 삼선에서 개최되었다.

3) 아프리카태권도연맹

1968년 코테 드 브아르에 김영태가 진출하여 보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69년 우간다 정부 초청을 받고 김남석이 진출하였다.

역시 아프리카는 타 대륙에 비해 태권도가 늦게 보급되었다.

1965년에 케냐에 윤목, 가나에 광기옥이 진출해 지금까지 보급하였고

1993년 탄자니아에 박인덕, 1993년 세네갈에 박익수, 1994년 튀니지에 임봉덕 등이 한국국제협력단의 추천으로 진출했다. 아프리카태권도연맹은 1979년 4월 코테드브아(아이보리코스트)에서 결성됐고 그곳에서 제1회 아프리카선수권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가 열리기까지는 이미 이곳 사범으로 진출해 태권도를 보급하고 있던 김영태의 공로가 컸다. 특히 김영태 사범은 제1회 세계태권도대회에 국가대표단의 코치로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아프리카 대륙의 태권도 보급에 기여한 공적이 많았다.

그는 1996년에 영구 귀국하여 3년 간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차장을 맡았다.

제6회 아프리카 태권도선수권대회가 2001년 9월 세네갈의 다카르에서 개최될 정도로 아직도 보급률이 더딘 것은 경제 취약국이기 때문이다.

4) 팬암태권도연맹

북미주의 태권도 보급은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 주둔했던 미국 병사들이 귀국해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소개되면서부터 한국 태권도인들의 유학 이민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1957년 미국에 진출한 이준구는 샌안토니오에 머물면서 태권도클럽을 최초로 만들었고 5년 뒤인 1962년 6월 워싱턴에 태권도 도장을 개설하면서 본격적으로 태권도 지도·보급에 나섰다.

1958년에는 조시학과 황세진이 뉴욕과 오클라호마시티에 각각 유학생으로 도미한 뒤 1960년에 도장을 개설한 것이 현재의 직업으로 굳혀졌다. 청도관 2대 관장인 손덕성은 1962년 뉴욕으로, 초대관장인 이원국은 1970년 초에 워싱턴으로 건너가 각각자리를 잡았다.

1963년에 미국으로 진출한 심상규는 협회를 통한 해외 파견 태권도인으로서의 외무부 등록 제1호로 기록되었다.

1960년대 초반에 활동한 사범으로서는 이준구, 손덕성을 비롯해 전인문, 조시학, 김인묵, 전계배, 정석종, 강서종, 신현옥, 김기하, 차수영, 이수웅, 남태희, 김기황 등이 있고 1968년에 독일에서 고성목, 은상기, 최창해 등이 미국으로 건너갔다.

1960년대 후반에 홍영일, 안경원, 정화, 강명규, 민경호, 현준선, 윤덕만, 이행웅, 김병수 등이 도미하여 보급에 앞장 섰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신상진, 이종수, 이경태, 김영철 등이 진출했다.

남미지역에는 1962년 과테말라에 김용덕이 유학생으로 나가 보급되기 시작했고, 1964년에 에콰도르에 이범재가 진출하였다. 1966년 엘살바도르에 최병호가 교환교수로 나가서 보급했으며 1960년대 멕시코에는 황세진 이후에 문대원이 1969년에 파견되었다.

1967년에 콜롬비아 이경득, 브라질에 이우재, 이희섭이 각각 진출해 보급을 전개했다. 1970년에 파라과이는 김영균이 처녀 진출해 열성을 쏟았고 같은 해 베네주엘라에서는 이종구, 김흥기, 김흥기 형제 등이 나서서 열성적으로 보급했다. 또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는 정진영이, 페루에서는 이기형 등이 진출해 보급에 전념하고 있다.

미국에서 유도인으로 출발한 태권도인은 민경호, 신경선, 박용진, 김찬용 등이다. 이중 민경호는 미국태권도연맹이 미국아마추어경기연맹에 가입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민경호는 1963년 도미하기 전 인천고교시절에 황기 관장의 무덕관에서 태권도를 배워 3단의 유단자였다.

민경호는 1972년 카라테가 미국 아마추어경기연맹(AAU)에 가입한 것에 자극을 받았다.

카라테가 AAU에 들어가자 미국사회에서 『코리언 카라테』로 불리던 태권도는 카라테의 하부조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쿵푸도 예외는 아니었다.

민경호는 태권도를 한국 고유의 무술로 지키기 위해서는 태권도가 독자적으로 AAU에 가입되도록 관철시켜야겠다고 결심했다.

결국 민경호를 비롯한 유도선수 출신 태권도인의 집요한 노력으로 마침내 AAU에 가입하는데 성공했다. 이어 AAU에 태권도위원회가 구성됐고 초대회장엔 민경호 부회장엔 황인수가 선임되는 쾌거를 올렸다.

한편 신경선은 무도복을 취급하는 마케팅에 일찍 나섰는데 1977년 시카고 제3회 세계대회 공식후원업체로 지정될 정도로 탁월한 사업 수완을 발휘했다.

팬암태권도연맹(회장 박차석)은 1978년 9월 멕시코시티에서 결성되었다.

문대원의 노력으로 제1회 팬암선수권대회를 멕시코태권도협회에서 조직하고 10개국 대표가 참석해 팬암연맹의 창설을 보게 되었는데 초대회장엔 양동자가 선출되었다.

팬암선수권대회는 제13회 대회를 2002년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했다.

IV. 태권도 경기대회의 발전과정

1. 국제대회 공식종목의 채택

세계태권도연맹(WTF)은 1975년 10월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에 가입하여 경기태권도로서의 입지를 확립하게되었다. 특히 일본의 카라테와 북한측의 지원을 받고 있는 최홍희의 국제태권도연맹(ITF)에 앞서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로부터 정식 경기단체로 인정받음으로써 국제화는 물론 올림픽정식종목화하는데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되었다. 1973년 세계태권도연맹 창설 후 곧바로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에 가입한 것은 오랜 외교관 활동으로 국제흐름에 정통해 있던 김운용 세계태권도연맹회장이 서둘렀기 때문이다. 당시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부회장 겸 명예총무로 국제업무를 담당했던 김운용은 태권도를 국제무대에서 공인받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함께 세계스포츠 양대 기구인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 가입에 총력을 기울였다. 태권도는 60년대 중반부터 월남에 파견된 군태권도 교관단의 활동으로 세계보급에 나선 터였다. 그러나 1966년 1월 대한태권도협회 정기총회에서 이사들의 불신임으로 불명예 퇴진한 최홍희 국제태권도연맹회장은 그 해 3월 월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9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태권도연맹(ITF)를 창설해 사범의 해외파견과 단증발급 품새통합을 놓고 대한태권도협회와 잦은 마찰을 빚고 있었다. 한국에서 입지를 잃어 1972년 캐나다로 이민간 최홍희는 1973년 4월 국제태권도연맹본부를 서울에서 캐나다 토론토로, 다시 1985년 5월 오스트리아 빈으로 옮겼다. 국제태권도연맹과 일본의 카라테 등 유사 단체와의 국제무대 주도권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태권도의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 가입은 중요한 사안이었다. 불

론 올림픽정식종목이 되기 위한 첫 단추이기도 했다.

김운용은 1975년 8월 제2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오스카 스테이트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 사무총장(영국)과 국제체육기자연맹(AIPS) 관계자들을 서울로 초청, 사전 정지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김운용은 그 해 10월 캐나다 몬트리올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총회에 도착하자마자 오스카 스테이트 총장으로부터 국제유도연맹 회장이자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 집행위원인 영국의 찰스 파머가 태권도의 가입을 반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 가입은 만장일치로 결정돼 단 한사람의 반대가 있어도 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김운용은 파머를 만나 태권도의 역사와 전통을 설명하고 카라테와의 차이점을 끈질기게 이야기했다. 총회 마지막날 4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태권도는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 가입에 성공했다.

태권도는 1975년 10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EF)가맹을 시초로 1976년 4월 국제군인체육회에서(CISM) 제23차 경기종목으로 태권도가 공식 채택되었다. 그리고 1980년 7월 17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제83차 총회에서 세계태권도연맹을 태권도의 공식단체로 승인하였고 1981년 1월 국제스포츠과학 및 체육회이사회(ICSSPE)에 가맹됐다.

태권도 올림픽화의 서막을 연 세계태권도연맹은 1982년 11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장과 세계연맹 총재간에 올림픽운동의 독립을 보장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힘입어 세계태권도연맹은 1983년 8월 카라카스에서 열린 팬 아메리카 스포츠기구(PASO)쪽 제20차 회의에서 태권도를 팬 아메리칸 게임에 공식종목으로 채택토록 했고 동년 12월 남아프리카스포츠최고회의(SCSA)쪽에서 올아프리카게임에 공식종목으로 채택하고 국제스포츠 및 레저시설연맹(LAKS)쪽에 가맹됐다.

1984년 9월 제3차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총회에서 태권도를 86년 서

을 아시안게임에 공식종목으로 채택했다.

태권도의 올림픽채택 운동은 1985년 6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90차 IOC총회에서 1988년 제24회 서울 올림픽대회 시범종목으로 가시화되었다.

1985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태권도연맹 제7차 총회에서 월드컵대회를 창설키로 결의했고 1986년 5월 세계태권도연맹은 IOC페어플레이 위원회와 국제대학연맹(FISU)에 동시에 가입했다.

그리고 1987년 1월 태권도는 동남아시아게임(SEA GAME)과 12월 남태평양게임에 각각 공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시범종목으로서 태권도의 두 번째 올림픽종목 채택은 1989년 4월 IOC총회에서 결정됐고 1992년 바르셀로나 제25회 올림픽대회에 참가했다.

첫 번째 세계선수권대회는 1973년에 개최되었으며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시범종목으로서 첫 선을 보이게 되었고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도 시범종목으로서 남아 있었다.

태권도의 올림픽정식종목의 채택은 1994년 5월 7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게 될 IOC 프로그램위원회가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여부를 1차 심의하는 중요한 회의였다.

21명으로 구성된 이 회의에서 11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그 해 9월 파리 IOC총회에서 의제로 채택돼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태권도가 2000년 시드니올림픽 정식종목에 들지 못 할 경우 일본의 카라테가 막강한 조직력과 자금을 바탕으로 다음순서를 기다리고 있어 세계태권도연맹으로서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는 절박한 입장이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사마란치 위원장을 비롯하여 집행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해 1994년 9월4일(현지날짜) 임시집행위에서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정식종목채택이라는 쾌거를 이루어 냈다.

2. 세계태권도연맹주최 주요경기대회

세계태권도연맹이 직접 주최하는 대회로는 세계남녀시니어선수권대회와 세계 남녀주니어선수권대회 및 월드컵대회 등이 있다.

세계선수권대회는 창립연도인 1973년 5월 서울에서 열린 제1회 세계선수권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2001년 한국 제주도에서 제15회 세계대회를 개최했다. 제1회 세계여자선수권대회는 1987년 바르셀로나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래 2001년까지 제8회 세계대회를 치렀으며 현재 남자 대회와 함께 열리고 있다. 그리고 세계주니어여자선수권대회 제1회는 1996년 바르셀로나에서, 제2회는 1998년 9월 이스탄불에서, 제3회는 2000년 11월 킬라니에서 59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월드컵대회는 처음 1986년 6월 미국에서 개최된 이후 12번째 대회가 2002년 7월 일본 동경에서 열렸다.

그 외 대회로는 세계대학선수권대회, 세계군인선수권대회가 있고 4개 지역연맹에서 개최하는 지역별 선수권대회가 매 2년마다 열리고 있다. 세계연맹에서 승인한 국제대회를 비롯하여 멀티스포츠게임이 있는데 아시안게임, 팬 아메리칸게임, 동남아시아게임, 올아프리카게임 및 남아메리칸 게임, 중앙아메리칸스포츠게임, 중앙아메리칸 및 카리비안게임, 보리바리안스포츠게임 및 남태평양게임 등에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돼 있다.

3. 세계태권도연맹 역대주요대회

<표4-1-1> 세계선수권대회(남자)

회수	연도	참가국	개최지	대회결과
1	1973	19	한국(서울)	단체전(종합우승). 개인전(금2)
2	1975	30	한국(서울)	종합우승(금2)
3	1977	46	미국(시카고)	종합우승(금7 은1)
4	1979	38	서독(스튜트가르트)	종합우승(금7 동2)
5	1982	50	에콰돌(과이야킬)	종합우승(금8)
6	1983	64	덴마크(코펜하겐)	종합우승(금8 동1)
7	1985	63	한국(서울)	종합우승(금7 은1)
8	1987	56	스페인(바르셀로나)	종합우승 : (금6) 2위 : 중국(금1 동1) 3위 : 독일(금1 동1)
9	1989	58	한국(서울)	종합우승 : 한국(금7 은1) 2위 : 터어키(은2 동1) 3위 : 이집트(금1 동2)
10	1991	46	그리스(아테네)	종합우승 : (금5 동2) 2위 : 덴마크(금2 은1) 3위 : 스페인(금1 동2)
11	1993	82	미국(뉴욕)	종합우승 : (금6) 2위 : 스페인(금1 은1) 3위 : 프랑스(금1 동1)
12	1995	74	필리핀(마닐라)	종합우승 : 한국(금5) 2위 : 스페인(금1 은1) 3위 : 필리핀(은2)
13	1997	80	홍콩	종합우승 : 한국(금4 동2) 2위 : 스페인(금1 동1) 3위 : 대만(금1 은1 동3)

회수	연도	참가국	개최지	대회결과
14	1999	64	캐나다(에드몬튼)	종합우승 : (금6 은1) 2위 : 이란(금2) 3위 : 터어키(은3)
15	2001	88	한국 (제주도)	종합우승 : 금2 동2 2위 : 터어키(금1 동2) 3위 : 이란(금1 은1)

<표4-1 2> 세계선수권대회(여자)

회수	연도	참가국	개최지	대회결과
1	1987	32	스페인 (바르셀로나)	종합우승(한국, 금3 은2 동1) 2위 대만(금1 은3 동3) 3위 스페인(금1 은1 동3)
2	1989	34	한국 (서울)	종합우승 한국(금5 동2) 2위 미국((금2 은2 동1) 3위 대만 (금1 은2 동3)
3	1991	34	그리스 (아테네)	종합우승 한국(금3 동2) 2위 터어키(금1 은3) 3위 미국(금2 은1)
4	1993	54	미국 (뉴욕)	종합우승 한국 (금5 은1 동1) 2위 스페인(금2 은1) 3위 대만(금1 동2)

회수	연도	참가국	개최지	대회결과
5	1995	50	필리핀(마닐라)	종합우승 한국(금5 은2) 2위 대만(금1 은1 동2) 3위 필리핀(금1 은1 동1)
6	1997	57	홍콩	종합우승 한국(금7 은1) 2위 대만(금2 은1 동2) 3위 멕시코(동1)
7	1999	53	캐나다 (에드몬튼)	종합우승 한국(금3 은3) 2위 스페인(금2 은1 동2) 3위 대만(금2 동2)
8	2001	64	한국 (제주도)	종합우승 한국(금6 은1) 2위 스페인(은3 동2) 3위 대만(은2 동1)

<표4-2> 아시아선수권대회

회수	연도	참가국	개최지	대회결과
1	1974	10	한국 (서울)	1위 한국(금8) 2위 대만(은4 동3) 3위 크메르(은2 동1)
2	1976	10	호주 (멜버른)	1위 한국(금8) 2위 필리핀(은3 동4) 3위 호주(은2 동5)
3	1978	11	홍콩	1위 한국(금8) 2위 호주(은3 동4) 3위 이란(은2 동4)
4	1980	9	대만 (타이페이)	1위 한국(금9 은1) 2위 대만(금1 은6 동 1) 3위 크메르(은1 동4)
5	1982	17	싱가폴	1위 한국(금9 은1) 2위 대만(금1 은3 동 1) 3위 태국(은3 동3)

회수	연도	참가국	개최지	대회결과
6	1984	21	필리핀 (마닐라)	1위 한국(금9) 2위 필리핀(금1 동3) 3위 대만(은4 동1)
7	1986	18	호주(다윈)	1위 한국(금6 은1 동1) 2위 호주(금1 은 3 동1) 3위 대만(금1)
8	1988	17	네팔 (카트만두)	1위 한국(금8) 2위 대만(은4 동3) 3위 요르단(은1 동4)
9	1990	18	대만 (타이페이)	(남자부) 1위 한국(금5 은2) 2위 대만(금2 은3 동 1 3위 요르단(금1 동6) (여자부) 1위 대만(금4 동2) 2위 한국(금2 은3 동 1) 3위 말레이시아 (은1 동3)
10	1992	18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남자부)1위 한국(금6 은1) 2위 대만(금 1 은3 동2) 3위 이란(금1 은1 동4) (여자부)1위 한국(금5 은2) 2위 호주(금2은 4) 3위 이란(금1은1동1)
11	1994	20	필리핀 (마닐라)	(남자부)1위 한국(금7) 2위 필리핀(금1 은1 동3) 3위 대만(은3 동1) (여자부)1위 한국(금4 은1 동3) 대만(금 4 은2) 3위 필리핀(은1 동4)
12	1996	22	호주 (멜버른)	(남자부)1위 한국(금6은1) 2위 이란(금2 은4 동1) 3위 호주(은2 동7) (여자부)1위 한국(금6 은2) 2위 이란(금1 은 2 동2) 3위 호주(은2 동2)
13	1998	26	베트남 (호치민)	(남자부)1위 한국(금7 동1) 2위 대만(금 1 은1 동2) 3위 요르단(은2 동3) (여자부)1위 한국(금4 은1 동3) 2위 대만(금 2 은2 동2) 3위 중국(은1 동1)

회수	연도	참가국	개최지	대회결과
14	2000	24	중국, 홍콩	(남자부)1위 한국(금8) 2위 필리핀(은3 동3) 3위 대만(은2 동1) (여자부)1위 한국(금5 은2 동1) 2위 중국(금2 은2) 3위 대만(금1 은2 동2)
15	2002	25	요르단 (암만)	(남자부)1위 한국(금6 동1) 2위 이란(금1 은2 동2) 3위 요르단(금1 은1 동1) (여자부)1위 한국(금6 동1) 2위 대만(금1 은3) 3위 중국(금1 은1 동4)

<표4-3> 월드컵태권도대회

회수	연도	참가국	개최지	대회결과
1	1986	16	미국(콜로라도)	남자 우승 한국(금6 은1)
2	1987	17	핀란드(헬싱키)	남자 우승 한국(금5 은2)
3	1989	16	이집트(카이로)	남자 우승 한국(금4 은1 동2)
4	1990	16	스페인(바르셀로나)	남자우승(금5 은3) 여자: 대만1위(금4 은2 동2) 한국2위(금2 은2)
5	1991	19	유고(자그레브)	남자 한국1위(금6) 여자 대만1위(금3 은2 동2) 스페인2위(금2 은2 동2) 한국3위(금2 은1 동2)
6	1994	22	케이만아일랜드 (조지타운)	남자 한국1위(금4 은1) 여자 대만1위(금4 동2) 스페인2위(금3) 영국3위(금1 동1) 한국9위(은1)

회수	연도	참가국	개최지	대회결과
7	1996	20	브라질(리오데자 네이로)	남자 멕시코1위(금3 은1) 한국2위(금3 은1) 여자 대만1위(금4 동2) 스페인2위(금1 은3) 한국3위(금1 은1)
8	1997	16	이집트(카이로)	남자 1위 한국(금5 동1) 여자 1위 한국(금2 은1 동2)
9	1998	27	독일 (싱텔핑겐)	남자 1위 한국(금4 동1) 여자 스페인1위(금2 은1 동2) 한국2위(금2 은1 동1)
10	2000	29	프랑스(리용)	남자: 이란1위(금2 은2) 프랑스2위(금2 은1) 한국3위(금2 동3) 여자 한국1위(금3 은1 동1) 중국2위(금2) 터키3위(금1 은1)
11	2001	30	베트남(호치민)	남자 한국1위(금3 동2) 이란2위(금2 은1 동2) 프랑스3위(금2) 여자 한국1위(금3 은3 동1) 스페인2위(금1 은2) 터어키3위(금1 은1 동1)
12	2002	32	일본(도쿄)	남자 한국1위(금3 은2 동2) 이란2위(금3 은1 동2) 프랑스3위(금1 동1) 여자 한국1위(금4 은1) 대만2위(금2 은1 동1) 러시아3위(금1)

<표4 4> 세계대학선수권대회

회수	연도	참가국	개최지	대회전적
1	1986	26	미국(버클리)	남자 1위 한국(금6 은1 동2) 여자 1위 한국(금5 은2 동1)
2	1990	26	스페인 (산단테)	남자 1위 한국(금6 은2) 여자 1위 한국(금4 은3 동1)
3	1992	19	멕시코	남자 1위 한국(금7 동1) 여자 1위 한국(금3 은2 동2)
4	1996	32	러시아 (생페테르부르크)	남자 1위 한국(금6) 2위 대만(금1 은1 동1) 3위 이란(금1 은3 동3) 여자 1위 한국(금4 은1 동2) 2위 대만(금2) 3위 이란(금1 은3 동2)
5	1998	26	멕시코 (코리마 만자닐로)	남자 1위 한국(금7) 2위 프랑스(금1 은1 동2) 3위 대만(은3 동2) 여자 1위 대만(금4 은2 동1) 2위 한국(금3 은1 동1) 3위 프랑스(금1 은2)
6	2000	33	대만(고웅시)	남자 1위 한국(금6 은1) 2위 대만(금1 은2) 3위 스페인(금1) 여자 1위 한국 (금4 은1 동3) 2위 미국 (금2 은1 동2) 3위 대만 (금1 은2 동3)
7	2002	30	미국 (캘리포니아)	남자 1위 한국(금5 은2 동1) 2위 대만(금1 은2 동2) 3위 터키(금1 은1) 여자 1위 미국(금3 은1 동1) 2위 대만(금1 은1 동3) 3위 스페인(금1 은2)

<표4-5> 국제군인선수권대회

회수	연도	참가국	개최지	대회전적
1	1980	10	한국	종합우승(금7)
2	1987	14	한국	" (금7)
3	1991	17	한국	" (금6 은2)
4	1992	13	이란	" (금1 은2)
5	1993	15	캐나다	" (금5 은2 동1)
6	1994	18	페루	" (금5 은1 동2)
7	1995	·	이란	" (금5 은1 동2)
8	1996	·	크로아티아	" (금5 은2)
9	1997	16	이태리	" (금5 은2 동2)
10	1998	22	미국(텍사스)	" (금5 은1) 준우승 독일 (금1 은4) 3위 미국 (금1 은1)

V. 경기규칙의 발달과정

1. 태권도경기규칙의 제정 및 변천

태권도 경기규칙의 발달과정을 보면, 1962년 11월3일 처음으로 겨루기 경기규칙이 제정되었으나 이후 태권도 계의 갈등으로 대한태권도협회가 재구성되어 1973년 새로운 태권도경기규칙이 제정되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1973년 5월28일 규약과 규칙을 제정한 이래 10차례 개정을 거쳤다.

대회조직 및 운영관리 규정은 1993년 8월17일, 금지약물 검사규정은 1990년 12월18일에 각각 제정했다.

세계태권도연맹 경기규칙의 개정과정을 보면 1977년 10월1일(1차 개정), 1982년 2월23일(2차 개정), 1983년 10월19일(3차 개정), 1986년 6월1일(4차 개정), 1989년 10월7일(5차 개정), 1991년 10월28일(6차 개정), 1993년 8월17일(7차 개정), 1997년 11월18일(8차 개정, 시행: 1998년 7월1일), 2001년 10월31일(9차 개정, 시행: 2002년 7월1일), 2003년 2월14일(10차 개정) 경기규칙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1962년 이후 경기규칙이 변천되어온 과정을 개괄할 때 경기시간과 장소의 합리화, 체급의 세분화, 선수보호용구의 실용화, 공격기술의 단순화, 규칙의 세분화, 경고 감점사항에 대한 세분화를 알 수 있으며 최종삼은 이를 <표5 1>와 같이 정리하였다.¹⁶⁾

16) 최종삼, 무도경기규정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p.112

<표5-1> 태권도의 경기변천과정

		경기화이전기	경기형성기 및 발전기	정 착 기
명 칭		당수도 · 공수도	태수도 · 수박도 · 태권도	태권도
경기 양상	유 형	개인전 · 체급전 · 리그제 · 토너먼트제		
	체 급	무체급 또는 2체급	- 8체급 중 · 고 · 대 · 일반은 고기부(4단이상)와 중기 부로 구분 초등학교는 11체급	11체급에서 8체급으로 환원
	복 장	복장이외 착용금지	- 몸통호구 · 낭심보호대 · 팔다리보호대	- 살보대 · 팔다리보호대 · 몸통보호대 · 머리보호대
	경기장	경기장 9×9m 높이 10cm	- 전체 12×12m정방형 - 경기장의 경계선(7.5 cm) 내 8×8m - 높이 : 20cm이하	- 전체 12×12m정방형 경기장 : 경계선내 8×8m - 경계지역 · 경기지역 · 경계선 · 한계선
경기 전개	계체량	체중에 의해 체급을 결정 하나 일정한 규정 없음	- 경기시간 2시간 전에서 경기시작 10분전까지 실시 - 대회때마다 실시	- 경기시간 1시간 전
	진행 순서	일정한 규정 없음	- 배심석 경례→복장검사 →상호입례→시작	신체복장점검→선수입장 →감독관입례→상호입례 →시작
판 정		- 형 · 대련 · 위력 · 특징을 실시하여 총점으로 결정한다. - 대련 : 공격결정타격 · 완전타격 · 방어 · 급소	- 실격승 기권승 KO승 판정승 감점승 우세승 RSC승	- 실격승 기권승 KO승 판정승 RSC승 반칙승 - 정확하고 강한 가격 - 부상2인이상이 채점한 것
경기 운영	시 간	- 대련 3분	- 3분 3회전, 중간휴식 1분	
	운영 방법		- 대회전 주심의 '시작' 과 '그만'의 중지와 진행 - 준비 · 회전 · 시작의 순 - 소청	- 위험한 상태의 조치 - 사후조치 - 경기중단 상황처리 - 경기영상기록:소청의뢰
	연장전	- 2분	- 예선부터 준결승은 계체량으로 하고 결승은 연장전, 비길 경 우 추첨	- 연장없이 판정으로 결정
금지사항		- 실격, 반칙, 감점	- 경고사항 - 감점사항	- 경고사항 - 감점사항 : 세분화

2. 경기규칙 개정 및 세부내용

1) 경기규칙의 목적

<표 6-1> 목 적

연도	내용	목	적
1977	제1조(목적) 본 위원회는 경기 전반에 대한 모든 사항을 장악하며 질서정연한 경기를 운영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199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계태권도연맹 경기규칙에 의거 본 협회와 산하 지부 및 연맹이 주최 및 주관하는 모든 대회를 통일된 규칙아래 원활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계태권도연맹 경기규칙에 의거 대한태권도협회(이하 '협회'라 함)와 산하 지부 및 연맹이 주최 및 주관하는 모든 대회를 통일된 규칙 아래 원활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3	2001년과 동일함		

2) 태권도 경기장

<표 6-2> 경기장

연도	내용	경	기	장
1977	제9조(경기장) 1. 경기장은 평탄한 바닥으로서 마루 또는 이와 유사한 물체이어야 한다. 단, 경기장 내에는 여하한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 된다. 2. 경기장의 넓이는 사방 8미터의 정방형으로 하고 사방 8미터 외곽에 2미터의 안전 지대를 둔다.			

연도	내용	경 기 장
1977		3. 경계선의 표지는 5센치 폭의 백선으로 하되 정방형의 8미터 안쪽으로 표시한다.
1980		제11조(경기장) 경기장은 바닥이 복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로 그 바닥 면이 수평이어야 한다. 크기는 가로 12m×12m의 정방형이며, 이 안에는 모든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단, 필요에 따라 경기장을 바닥면 보다 20cm이하 높이의 경기대로 대체할 수 있다. 1. 경기장소, 경계선 : 경기장내 8m×8m 크기의 정방형을 백선 폭 7.5cm로 표시한 것을 경계선이라고 칭하며 경계선의 지역을 경기장소라고 칭한다.
1982		제9조(경기장) 경기장은 바닥이 복재 또는 에타폼 (ETHA FOAM)판 재료로 되어야 한다. 그 바닥면이 수평하여야 하고 크기는 가로 12m×12m의 정방형이어야 한다. 이 안에 모든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경기장내 중앙부에 8m×8m 크기의 정방형을 폭 7.5cm(백색)으로 표시한 것이 경계선이며 경계선내의 지역이 경기장소이다. 다만, 필요에 따라 경기장의 높이를 원바닥면과 같이 할 수 있다.
1990		제3조(경기장) 경기장은 12m×12m넓이의 정방형으로 장애물이 없는 수평이어야 하며, 바닥은 탄력성있는 매트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경기장은 높이 50cm~60cm의 경기대로 조정 설치할 수 있으며 안전도를 고려하여 30°이내의 경사각이 지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장의 구분 가. 12m×12m넓이의 경기장 정 중앙부에 8m×8m넓이의 정방형을 경기지역이라 하고 그 외곽경기장을 경계지역이라 한다. 나. 경기지역과 경계지역은 바닥면의 색상을 달리하여 구분한다. 단, 같은 색상일 때는 5cm폭의 백색선으로 구분한다.

연도 \ 내용	경 기 장
1990	나. 경기지역과 경계지역의 구분선을 경계선이라 하고 경기장 끝선을 한계선이라 한다.
2001	제3조 경기장 1. 경기장의 구분 1) 12m×12m 넓이의 경기장을 경기지역이라 하고 경기지역 끝선인 한계선으로부터 사방 1m 내부 바닥면 색상을 달리하여 선수로 하여금 한계선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2) 경기지역과 주의지역은 바닥면의 색상을 달리하여 구분한다. 단, 같은 색상일 때는 5cm폭의 백색선으로 구분한다. 3) 경기지역과 주의지역의 구분선을 주의선이라 하고 경기장 끝선을 한계선이라 한다.
2003	2001년과 동일함

3) 태권도 경기운영

(1) 주심의 위치

<표 6-3-1> 주심 위치

연도 \ 내용	주심 위치
1977	제9조(경기장) 4. 경기장 내에는 주심 및 양 선수의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가) 주심의 위치 표지는 경기장의 중심점으로부터 배심원석을 향하여 1미터 후방에 직경 10센티의 백색 원으로 표시한다.
1980	제11조(경기장) 2. 심판원, 선수, 코치의 위치표시 1) 경기장 중심점으로부터 배심석을 향해 1.5m 후방에 직경15cm 크기의 흑색 원을 그려 표시한 것을 주심위치 표시라고 칭한다.

연도	내용	주심 위치
2001	제3조(경기장) 2. 위치표시 1) 주심위치 : 경기장 중심점으로부터 제3한계선을 향해 후방으로 1.5m 떨어진 곳에 정한다.	
2003	2001년과 동일함	

(2) 부심의 위치

<표 6-3-2> 부심 위치

연도	내용	부심 위치
1977	제9조(경기장) 5. 부심, 배심, 계사원 및 코치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가) 부심의 위치 표시는 경기장의 모서리에서 중심점을 향하여 대각 선상의 50센치 후방에 직경 10센치, 폭 3센치의 백색 선으로 원을 그리고 배심원석을 향하여 우측 모서리부터 부심석 표시 안에 시계방향으로 1,2,3,4의 숫자를 표시하며, 중심점을 향하여 의자를 놓는다	
1980	제11조(경기장) 2. 심판원, 선수, 코치의 위치표시 2) 경계선 사방 각 코너에서 경기장 중심점을 향해 50cm 떨어진 곳에 직경 15cm 크기의 백색 원에 흑색의 ①②③④로 표시한 것을 부심위치 표시라고 칭한다. 단, 배심석에서 경기장소를 향해 좌측 앞 코너를 ① 좌측 뒤 코너를 ② 우측 뒤 코너를 ③ 우측 앞 코너를 ④로 하며 위 각 위치표시 위에 이전이 용이한 의자를 준비한다.	
1982	제9조(경기장) 1. 심판원, 선수 및 코치의 위치표시 나) 경계선 사방 각 코너에서 경기장소 중심점을 향해 50cm 떨어	

연도	내용	부심 위치
1982		진 곳에 직경 15cm 크기의 원으로 표시하고 그 원 위에 1,2,3,4의 수를 그려 표시한다. 다만, 배심석에서 경기장소를 향해 좌측 앞 코너를 1, 좌측 뒤 코너를 2, 우측 뒤 코너를 3, 우측 앞 코너를 4로 하며 위의 각 위치표시 위에 개인의자를 준비한다.
1997	제3조(경기장) 2. 위치표시 2) 부심위치 제1부심은 제1한계선 중앙에서 경기장 중심점을 향해 후방 0.5m 떨어진 곳에 정하며, 제2부심은 경기장 중심점을 향해 제2한계선 하단 모서리로부터 후방 0.5m 떨어진 곳에 정한다. 제3부심은 제2부심과 동일하게 제4한계선에 정한다.	
2003		1997년과 동일함

(3) 주심의 임무

<표 6-3-3> 주심임무

연도	내용	주심 임무
1977	제9조(심판원의 임무 및 권한) 주심 가) 주심은 경기의 주도권을 장악하며 경기진행 시엔 “준비” “회전” “시작” “계속” “그만”의 용어를 사용한다. 나) 주심은 경기 시작 전에 선수의 복장과 부당한 장비의 유무를 점검하고 선수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려 준다. 다) 주심은 경기의 시종, 경고, 감점승패, 연장, 퇴장을 선언한다. 라) 주심은 경기 중에 항상 양 선수에 가까운 위치에 따라 다녀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엔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 마) 주심은 경기 중 선수가 반칙(경고, 감점)을 행하였을 때엔 경기를 중단시키고 선수와 주심의 원 위치에 와서 반칙 대한 선언을 하여야 하며 주의사항을 범했을 때엔 경기를 중단시키고 적당한 위치에서 주의를 알리고 접근 전 또는 서로 잡았을 때에도 “갈려”한 후 양 선수를 서로 2보 뒤로 물러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연도	내용
1977	“계속”시킨다. 바) 주심은 경기도중 선수가 기권하거나 또는 코치가 수건을 던져 기권을 표시하였을 때나 고의 또는 자연 전의를 상실하였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경기를 진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시엔 지체없이 경기를 중단시키고 승패선언을 한다. 사) 주심은 경기도중 불가항력으로 1분 이내에 경기를 계속하지 못할 시엔 패자로 선언한다. 아) 주심은 경기도중 필요에 따라 경기시간 정지를 선언할 수 있으며 계시 원에게 통고한다. 자) 주심은 경기 종료 후 부심으로부터 받은 채점표를 배심원에게 제출하고 소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차) 주심은 경기 중 정당한 공격에 의하여 선수가 다운되었을 때엔 오른손으로 카운트를 하며 10(10초)을 세여도 다운된 선수가 경기에 임할 수 없을 때는 상대 선수에게 KO승을 선언한다.
1990	제20조(심판원) 2. 임무 가. 주심 1) 경기전반에 걸쳐 주도권을 갖는다. 2) 경기의 “시작”, “그만”, “갈려”, “계속”, “계시” 승패의 선언, 감점선언, 경고선언, 퇴장선언을 한다. 3) 규정에 따라 판정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4) 득점의 채점은 하지 않는다. 5) 경기결과가 동점이거나 무득점일 경우, 우세기준에 의해 승패를 결정한다.
2003	제20조 심판원 1. 자격 본 협회에 등록된 심판자격증 소지자 2. 임무 1) 주심

연도	내용	주심 임무
2003		(1) 경기전반에 걸쳐 주도권을 갖는다. (2) 경기의 “시작”, “그만”, “갈려”, “계속”, “계시”, “시간”, 승패의 선언, 감점선언, 경고선언, 퇴장선언을 한다. 모든 선언은 결과가 확인된 후 선언된다. (3) 규칙에 따라 판정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4) 득점의 채점은 하지 않는다. (5) 경기결과가 동점이거나 무득점일 경우, 우세기준에 의해 승패를 결정한다. 2) 부심 (1) 득점이라고 인정되면 즉시 채점한다. (2) 주심이 의견을 물었을 때 자기의 소견을 진술한다. 3. 판정의 책임 심판판정은 절대적인 것이며, 소청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복장 1) 심판원은 본협회가 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2) 심판원은 경기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휴대할 수 없다.

4) 경기운영 방법

(1) 경기의 방식

<표 6-4-1> 경기방식

연도	내용	경 기 방 식
1977		제12조(경기방식) 1. 토너먼트 전 가) 토너먼트 전은 해당 체급에서 4인 이상 출전치 않으면 그 체급은 경기를 인정치 않는다. 나) 참가 선수의 수가 4명을 초과할 시 2차 전에 진출한 선수의 수

연도	내용	경 기 방 식
1977	가 4, 8, 16, 32, 64, 128명이 되도록 대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대전 편성 수는 대전 상대 추첨 번호 수와 합한 수가 다음 수와 같아야 한다. (3, 5, 9, 17, 33, 65, 129.....) 2. 리그전 가) 리그전은 참가 선수가 3인 이상이어야 한다. 나) 리그전은 아래 도표의 방식에 의한다. 다) 경기도중 사고로 인하여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선수의 성적은 사고 당시까지의 얻은 성적으로 판정한다.	
1980	제15조(대전방식) 단체전, 개인전 그리고 개인전을 통한 단체전을 다음 방식으로 구분한다. 1. 리그전 2. 토너먼트식 3. 승발전식	
1990	제6조(경기의 종류 및 방식) 2. 경기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토너먼트 전 2) 리그전	
1997	제6조(경기의 종류 및 방식) 2. 경기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싱글 일리미네이션(Single Elimination Tournament) : 개인 토너먼트 2) 라운드 로빈(Round Robin) : 리그전 3) 더블 레퍼샤지(Double Repechage) : 패자부활전 3. 올림픽 경기는 각 체급별 개인간의 대전 방식으로 한다. 4. 본 협회가 공인하는 모든 대회는 4개팀 이상이 참가하여야 하며 각 체급별로 4인 이상이 대전한 경우에만 그 성적이 인정된다	
2003	제6조 경기의 종류 및 방식 1. 경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개인전 : 각 체급별 개인간의 대전방식 단, 차상위 체급과 2체급의 통합전을 할 수 있다. 2) 단체전 : 단체간의 대전방식(성별 체급은 다음과 같다.) (1) 남, 여 체급별 5명제	

연도	내용	경 기 방 식
2003	<남자부> - 64kg까지, 64kg초과 63kg까지, 63kg초과 72kg까지, 72kg초과 82kg까지, 82kg초과. <여자부> - 47kg까지, 47kg초과 54kg까지, 54kg초과 61kg까지, 61kg초과 68kg까지, 68kg초과. (2) 채급별 8명제 (3) 채급별 4명제(차 상위 계급과 통합전) 2. 경기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Single Elimination Tournament : (개인 토너먼트) 2) Round Robin : (리그전) 3) Double Repechage : (패자부활전) 3. 올림픽경기는 각 채급별 개인간의 대전방식으로 한다. 4. 본 협회가 공인하는 모든 대회는 4개팀 이상이 참가하여야 하며 각 채급별 4인 이상이 대전한 경우에만 그 성적이 인정된다.	

(2) 경기의 시간

<표 6-4-2> 경기시간

연도	내용	경 기 시 간
1977	제17조(경기의 진행)	1. 경기는 3분 3회전으로 하며 중간휴식은 30초로 한다. 2. 여자부 및 국민학교부는 2분 3회전으로 하며 중간휴식은 30초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대회 본부 및 대표자 회의에서 변경할 수 있다.
1980	제12조(경기시간)	1. 남자부 : 3분 3회전, 휴식시간 1분 2. 여자부 : 2분 3회전, 휴식시간 1분 3. WTF는 필요에 따라 1, 2항의 경기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982	제13조(대전시간)	1. 고등, 대학 및 일반부는 3분 3회전 중간휴식 1분으로 한다.

연도	내용	경 기 시 간
1982	2. 중등, 국민학교 및 여자부는 2분 3회전 중간휴식 1분으로 한다 3. 본회 또는 대표자회의에서 필요에 따라 1, 2항의 경기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990	제7조(경기시간) 1. 남녀 공히 3분×3회전, 회전간 휴식시간 1분 2. 국민학교, 중학교부는 2분×3회전, 회전간 휴식시간 1분 3. 본회는 대표자회의를 통해서 1, 2항의 경기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001	제7조(경기시간) 1. 남자 경기는 3분×3회전, 회전간 휴식시간 1분으로 한다. 2. 여자부·초등부·중등부는 2분×3회전 회전간 중간휴식 1분으로 한다. 3. 협회는 대표자회의를 통해서 1, 2항의 경기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003	2001년과 동일함	

(3) 계체량

<표 6-4-3> 계체량

연도	내용	계 체 량
1977	제16조(계체량) 1. 계체량은 참가팀의 대표자 입회하에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계체 위원에 의하여 실시되며 계체기는 정부 검정을 받은 공인품 그대로 한다. 2. 계체량은 경기시작 2시간전부터 시작하며 경기시작 10분전 까지로 한다. 단, 경우에 따라 시간을 신축할 수 있다. 3. 계체의 순서는 경량급에서 중량급의 순으로 시행한다.	

연도	내용
1977	4. 계체량은 경기 시작일로부터 경기 종료일까지 매일 실시한다. 단, 경기가 없는 당일 선수는 계체하지 않아도 된다. 5. 모든 선수는 계체시 선수 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계체는 전 나체로 하되 2회까지만 허용한다. 7. 계체위원은 선수의 계체가 완료된 즉시 합격여부를 구두로 해당 선수에게 통고한다. 8. 경기중 무승부로서 계체로 승패를 가릴 때는 선수는 경기장을 이탈하면 실격당 한다.
1980	제17조(계체) 1. 계체는 WTF가 정한 계체기를 사용한다. 2. 계체량은 나체시의 체중을 뜻한다. 3. 각 체급의 모든 선수는 경기가 있는 날마다 1회의 계체량을 받아야 한다. 4. 계체업무는 경기 초 일에는 최초의 경기시작시간 2시간 전까지 그 다음날부터는 최초의 경기시작시간 1시간 전까지 끝나쳐야 한다. 5. 계체업무는 계체임원이 WTF가 정한 세칙에 따라 집행한다. 6. WTF는 필요에 따라 위1항 내지 5항의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1982	제16조 (계체량) 4. 모든 선수는 경기가 있는 날마다 계체량을 받아야 한다. 5. 계체량은 나체로 하되 2회에 한한다. 6. 계체위원은 선수에 계체가 완료된 즉시 합격 여부를 구두로 해당 선수에게 선언한다.
1990	제9조 (계체량) 1. 당일 대전선수는 경기시작 1시간 전까지 계체를 받아야 한다. 2. 계체는 전 나체로 한다. 3. 계체는 1회로하며 미달 또는 초과시는 계체시간 내에 한하여 1회의 계체를 더할 수 있다. 4. 계체로 인한 실격방지를 위해 경기시작 1일전부터 본 계체기와 같은 계기를 본회가 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예비 계체토록 한다.

연도	내용	계 체 량
1997	제9조 (계체량) 2. 계체시 남자는 팬티, 여자는 상의 흰 반팔 T셔츠와 하의는 공인 도복차림으로 계체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 전나체로 할 수도 있다.	
2001	제9조 계체량 1. 당일 대전 선수는 경기 전날에 계체를 받아야 한다.(단 대표자 회의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003	제9조 계체량 1. 당일 대전 선수는 경기 전날에 계체를 받아야 한다.(단 대표자 회의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계체시 남자는 팬티, 여자는 상의 흰 반팔 T셔츠와 하의는 공인도복 차림으로 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 전나체로 할 수도 있다. 3. 계체는 1회로 하여 미달 또는 초과시는 계체 시간내에 한 하여 1회의 계체를 더 할 수 있다.	

5) 경기진행의 절차

<표 6-5> 경기진행 절차

연도	내용	경기진행 절차
1980	제24조(경기시작 직전 및 종료후의 행사) 1. 개인전시작 직전의 행사 1) 주심의 “차렷” “경례” 구령에 배심 석을 향해 입례한다. 2) 주심의 “좌, 우향우”의 구령에 마주보고 선후 “경례” 구령에 상호 입례한다. 3) 주심은 먼저 청선수, 그리고 홍선수 순으로 복장점검을 한다. 4) 주심의 “준비”(구령) “회전” “시작”(구령)으로 경기를 시작한다.	

연도	내용
1980	경기진행 절차 2. 개인전 종료직후의 행사 1) 청, 홍선수는 서로 마주보고 선다. 2) 주심의 “차렷” “경례” 구령에 서로 입례한다. 3) 주심의 “좌우향우” 구령에 배심석을 향한다. 4) 주심의 “경례” 구령에 입례한다. 5) 주심은 마지막 회전의 채점표를 부심으로부터 받아 배심에게 전달한 다음, 배심으로부터 승패판정의 지시를 받은 후 청, 홍선수 중간지점에서 배심석을 향하고 선다. 6) 승자를 선언한다. 7) 퇴장
1982	제17조(경기의 진행) 3. 경기 시작시 선수는 지정된 청, 홍 선수 위치 표시에서 배심석을 향하여 선다. 주심의 “차렷” “경례” 구령에 배심석을 향해 입례한다. 주심의 “좌우향우”의 구령에 마주보고 선후 경례구령에 상호 입례한다. 4. 주심은 먼저 청선수 그리고 홍선수 순으로 복장점검을 한 후 “준비” “회전” “시작” 구령으로 경기를 시작한다. 5. 선수는 마지막 회전이 끝나면 지정된 위치에서 마주보고 선 후 주심의 “차렷” “경례” 구령에 상호 입례한다. 주심의 “좌우향우” 구령에 배심석을 향해 선후 “경례” 구령에 입례한다. 6. 주심은 채점표를 부심으로부터 받아 배심에게 전달한 다음 배심으로부터 승패 판정의 지시를 받은 후 청, 홍 선수 중간지점에서 배심석을 향해 선후 해당 선수의 팔을 들어 승자 선언을 한다.
1990	제10조(경기진행) 5. 경기진행의 절차 가. 선수는 주심의 “차렷”, “경례”에 따라 감독관을 향해 입례한다. 입례는 주먹을 쥔 상태로 양다리 옆에 붙인 자연스런 차렷 자세로 서서 허리는 15°, 머리는 45°각도로 숙여 예를 한다.

연도 \ 내용	경기진행 절차
1990	나. 선수는 주심의 “좌우향우”에 따라 마주보고 “경례”에 따라 입례한다. 다. 주심의 “준비”, “시작”에 따라 경기를 개시한다. 라. 마지막 회전이 끝나면 지정된 위치에서 마주보고 주심의 “차렷”, “경례”에 따라 입례한 후 바로 서서 판정을 기다린다. 마. 주심은 경기결과에 따라 승자의 손을 들어 선언한다. 단, 부상으로 인해 승자가 선수위치에서 있지 못할 경우 주심은 자신의 승자 쪽 손을 들어 선언한다. 바. 선수퇴장
1997	제10조(경기진행) 5. 경기 진행의 절차 1) 선수는 주심의 “차렷”, “경례” 구령에 따라 입례한다. 입례는 주먹을 쥔 상태로 양다리 옆에 붙인 자연스런 차렷 자세로 서서 허리는 30도, 머리는 45도 이상의 각도로 숙여 예를 표한다. 2) 주심의 “준비”, “시작”에 따라 경기를 개시한다. 3) 선수는 마지막 회전이 끝나면 지정된 위치에서 마주보고 주심의 “차렷”, “경례”에 따라 입례한 후 바로 서서 판정을 기다린다. 4) 승자 선언은 주심 자신의 승자 쪽 손을 들어 선언한다. 5) 선수 퇴장
2003	제10조 경기진행 1. 선수의 호출 : 경기시간 3분전부터 1분 간격으로 3회 호출한다. 경기개시 예정시간 1분 경과 후에도 출장하지 않는 선수는 대전포기로 간주한다. 2. 신체 및 복장 점검 : 호출된 선수는 지정된 검사대에서 협회가 지명한 검사원에 의해 신체 및 복장, 용구검사를 받아야 하며, 상대방에게 혐오를 주는 용모나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을 지녀서는 안 된다. 3. 선수입장 : 검사를 마친 선수는 1명의 코치와 함께 지정된 대기석에 입장한다.

연도	내용
	경기진행 절차
2003	4. 경기의 시작과 종료 : 매 회전마다 주심의 “시작”선언으로 개시되며, “그만” 선언으로 종료된다. 5. 경기진행의 절차 1) 선수는 주심의 “차렷, ”경례“ 구령에 따라 입례한다. 입례는 주먹을 쥔 상태로 양다리 옆에 붙인 자연스런 차렷 자세로 서서 허리는 30도, 머리는 45도 이상의 각도로 숙여 예를 표한다. 2) 주심의 “준비”, “시작”에 따라 경기를 개시한다. 3) 선수는 마지막 회전이 끝나면 지정된 위치에서 마주 보고 주심의 “차렷” “경례”에 따라 입례한 후 바로 서서 판정을 기다린다. 4) 승자 선언은 주심 자신의 승자쪽 손을 들어 선언한다. 5) 선수퇴장 6. 단체전 절차 1) 양팀 선수는 제출된 명단 순으로 정, 홍 선수위치로부터 일렬횡대로 마주보고 선다. 2) 경기진행은 5항의 절차에 따른다. 3) 양 진영 선수는 경기지역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고 순서에 따라 대전한다. 4) 경기종료 직후 양 진영 선수는 경기지역에 입장하여 마주 보고 선다. 5) 승자 선언은 주심 자신의 승자쪽 손을 들어 선언한다.

6) 득점

<표 6-6> 득점

연도	내용
1977	제10조(득점, 감점 및 경고 사항) 1. 득점부위 및 득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연도	내용
1977	가) 득점 부위 1) 몸통부위 : 가슴, 양옆구리, 배(아랫배는 제외) 2) 얼굴부위 : 양 귀를 중점으로 한 얼굴 전면 및 목(발차기에 한함) 나) 득점사항 및 점수 1) 주먹지르기 : 완전한 자세로 만일 공격을 하여 강타일 경우에 한하여 1점, 다운시켰을 때 2점. 2) 발차기는 : 몸통을 찔 때 2점(다운시켰을 때), 1점(맞았을 때). 얼굴을 찔 때 3점(다운시켰을 때), 2점(강하게), 1점(맞았을 때) 3) 두발이 공중에 뜬 상태로 얼굴을 찔 때 3점(강하게), 2점(맞았을 때) 다) 득점부위를 공격하였어도 득점치 못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먹 또는 발로 공격을 가한 후 바로 넘어졌거나 또는 상대방을 꺾안을 때 2) 접근(거의 붙은 상태)하여 공격할 경우
1980	제28조(득점) 주먹 또는 발기술로 다음의 공격부위를 바른 자세를 정확하게 공격하였을 때 득점으로 유효하다. 1. 공격부위 발 기 술 : 얼굴, 복부, 옆구리, 주먹기술 : 복부, 옆구리 2. 득점부위가(반칙부위 제외) 아니더라도 주먹 또는 발기술로 공격하여 상대방이 넘어졌을 때 득점으로 유효하다. 3. 주먹 또는 발 공격을 가한 직후, 고의로 넘어지거나 상대방 선수의 공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공격은 이를 유효 공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바른 자세는 몸의 기본자세를 뜻하며 정확한 공격이라 함은 발과 손의 공격방법이 기본에 의하여야 한다.
1982	제8조(득점) 주먹 또는 발기술로 다음의 공격부위를 바른 자세로 정확하게 공격하였을 때 1점을 득한다.

연도	내용
1982	1. 공격부위 발기술 : 얼굴, 몸통부위 주먹기술 : 몸통부위 2. 득점 부위(반칙부위 제외)가 아니더라도 주먹이나 발의 강한 공격으로 배꼽이상을 맞아 상대방이 넘어졌을 때 1점을 득한다. 3. 주먹 또는 발 공격을 가한 직후 고의로 넘어지거나 상대방 선수의 공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공격은 이를 유효공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990	제12조(득점) 1. 득점부위 1) 몸통 : 복부, 양 옆구리 2) 얼굴 : 얼굴의 허용부위 전면 2. 득점은 허용기술로 득점부위를 정확하고 강하게 가격한 것으로 한다. 단, 득점부위가 아니더라도 정당한 기술로 몸통보호구 위를 강하게 공격하여 상대를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한 경우는 득점으로 간주한다. 3. 득점 1회는 +1이다. 4. 득점은 전 3회전을 통산한다. 5. 득점의 무효 다음의 상황은 득점에 해당하여도 무효로 한다. 1) 공격자가 가격한 후 고의로 넘어졌을 때 2) 공격자가 가격한 후 반칙행위를 범하였을 때 3) 공격자가 반칙행위를 이용하여 가격했을 때
1992	제12조(득점) 1. 득점부위 가. 몸통부위 : 장골능을 기준으로 한 횡단선 이상에서 견봉을 기준으로 한 횡단선 이하의 부위로서 손기술과 발기술의 공격이 허용된다. 단, 호구로 보호되지 않은 등 부위는 공격을 할 수 없다. 나. 얼굴부위 : 양 귀를 기준으로 한 종단선의 전면 얼굴부위로서 발기술의 공격만이 허용된다.

연도	내용
1992	2. 득점은 허용기술로 득점부위를 정확하고 강하게 가격한 것으로 한다. 3. 득점 1회는 +1점이다. 4. 득점은 전 3회전을 통산한다.
2001	제12조(득점) 1. 득점부위 1) 몸통 : 몸통호구로 보호되는 부위 2) 얼굴 : 얼굴의 허용부위 전면 2. 득점은 허용기술로 득점부위를 정확하고 강하게 가격한 것으로 한다. 3. 득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몸통 1점 2) 얼굴 2점 3) 몸통부위나 얼굴에 대한 타격으로 상대 선수가 위험한 상태에 빠져 주심이 계수 할 시에 공격자에게 1점을 추가한다. 4. 득점은 전 3회전을 통산한다. 5. 득점의 무효 다음의 상황은 득점에 해당하여도 무효로 한다. 1) 공격자가 가격한 후 고의로 넘어졌을 때 2) 공격자가 가격한 후 반칙행위를 범하였을 때 3) 공격자가 반칙행위를 이용하여 가격하였을 때
2003	제12조 득점 1. 득점부위 1) 일반호구 사용시 ① 몸통 : 몸통호구로 보호되는 부위 ② 얼굴, 목 : 얼굴, 목의 허용부위 전면 2) 전자호구 사용시 ① 몸통 : 몸통채점기의 타깃부분 ② 얼굴, 목 : 얼굴 채점기의 타깃부분

연도	내용	득점
2003	2. 득점은 허용기술로 득점부위를 정확하고 강하게 가격한 것으로 한다. 단, 전자호구 사용시의 득점은, 허용기술로 득점부위(타깃)를 채급별로 규정한 힘 이상으로 가격하여 심판기 및 전광판에 표출된 것으로 한다. 3. 득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몸통 : 1점 2) 얼굴·목 : 2점 3) 몸통부위나 얼굴·목에 대한 타격으로 상대 선수가 위험한 상태에 빠져 주심이 계수할 시에 공격자가 1점을 추가 한다. 4. 득점은 전 3회전을 통산한다. 5. 득점의 무효 다음의 사항은 득점에 해당하여도 무효로 한다. 공격자가 반칙행위를 이용하여 가격하였을 때	

7) 태권도선수의 복장

<표 6-7> 선수 복장

연도	내용	선수복장
1977	제8조(복장) 3. 선수의 복장 가)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는 본 회가 지정한 청결하고 단정한 도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나) 선수는 본 회 공인 삿보대 및 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선수는 도복, 삿보대, 호구 이외의 여하한 부착물도 지니서는 안 된다.	

연도	내용	선 수 복 장
1980	제6조(선수의 복장) 1. 경기에 임하는 모든 선수는 WTF가 공인한 도복, 호구(몸통, 낭심, 정강이, 팔목, 주먹, 발부분)를 입어야 한다. 2. 제1항의 도복, 호구 이외의 물건을 지녀서는 아니 된다(안경, 반지, 시계 등). 3. 다만 주심의 허가를 얻어 손 또는 발에 붕대를 감을 수 있다.	
1990	제4조(선수 및 코치) 1. 선수 나. 복장 1)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본 협회가 공인한 도복 및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몸통호구, 머리보호대, 낭심보호대, 팔다리보호대를 착용하여야 하며 낭심보호대 및 팔다리보호대는 도복 안에 착용하여야 한다. 3) 고유번호는 도복의 등판 또는 왼쪽 상박에 부착한다.	
1997	제4조(선수 및 코치) 1. 선수 2) 복장 (1)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본 협회가 공인한 도복 및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경기에 임하는 남·여 선수는 몸통보호구, 머리보호대, 살보대, 팔다리보호대를 착용하여야 하며 살보대, 팔다리보호대는 도복 안에 착용하며 모든 보호구는 각 선수 개인이 지참하도록 한다.	
2003	1997년과 동일함	

VI.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1973년 세계태권도연맹의 창설과정과 역대주요대회, 경기규칙 등 태권도경기 발전과정을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1973년 5월28일 국기원에서 17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태권도연맹 창립총회를 열었다. 초대 총재에는 김운용을 추대하고 임기 4년의 부총재, 사무총장, 실행위원 등의 선임 및 제2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1974년 아시아선수권대회 개최장소 등을 의결하였고 태권도가 세계적인 경기대회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둘째, 세계태권도연맹은 4개의 지역연맹으로 아시아태권도연맹, 유럽태권도연맹, 아프리카태권도연맹, 팬암태권도연맹을 두고 있다.

1959년 국군태권도시범단의 시범과 월남전을 계기로 국군태권도교관단의 파견은 태권도의 보급을 점차 여러 국가로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어 사범의 해외진출을 활발하게 하였다.

아시아지역은 1963년부터 말레이시아에 최홍희, 싱가포르에 김복만, 홍콩에 유영구 등이 진출하여 태권도를 보급하기 시작하였고 유럽지역에는 1965년 최홍희를 단장으로 5명의 시범단이 서독 등을 방문하여 지도하였다. 아프리카에는 1965년 케냐에 윤목, 가나에 광기옥이, 1968년 코테 드 브아르에 김영태가 진출하여 지도하였다. 북미주는 1962년 이준구가 워싱턴에 태권도 도장을 개설하여 본격적으로 태권도를 보급하기 시작하였고 이 후로 조시학, 손덕성, 이원국 등이 진출하여 태권도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셋째, 세계태권도연맹은 1975년 10월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에

가입하여 태권도세계화에 토대를 구축하였다. 특히 일본의 카라테와 북한측의 지원을 받고 있는 최홍희의 국제태권도연맹(ITF)에 앞서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로부터 정식경기단체로 인정받음으로써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월드컵태권도대회, 세계대학선수권대회 등 다양한 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일부 여자부 경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기대회에 한국이 종합우승을 함으로써 한국인의 위상을 높여주었고 각 대회 참가국 수도 점차 늘어나 태권도경기대회는 매우 활성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제27회 시드니올림픽대회, 2002년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 2004년 제28회 아테네 올림픽까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명실공히 세계적인 경기로 발전하였다.

넷째, 세계태권도연맹은 1973년 새로운 경기규칙을 제정하여 2003년까지 10차례 경기규칙을 개정하여 체계화된 경기규칙으로 경기가 활성화됨으로써 태권도는 이제 전 세계인의 스포츠로 자리잡게 되었다.

참 고 문 헌

-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 경기규칙(해설), 2003.
- 강명규, 태권도 13권, 대한태권도협회, 1974, p.19.
- 강원식, 이경명, 태권도 현대사, 보경문화사, 1999.
- 강원식·이경명, 우리 태권도의 역사, 도서출판 상아기획, 2002, pp.118-133.
- 국기원, 국기원 25년사, 1997.
- 국기원, 태권도교본, 삼훈출판사, 1987.
- 權五悅, 南北 스포츠交流 活性化 方案에 대한 考察, 1990,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 김광성·김경지, 한국태권도사, 경운출판사, 1989.
- 김대식·김광성, 태권도지도자 이론, 나남출판사, 1987, pp.17~19.
- 김명수, 태권도의 스포츠제도화 과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p.79.
- 김용옥, 태권도철학의 구성원리, 통나무, 서울, 1990, p.131.
- 김운용, 태권도, 1, 대한태권도협회, 1971, p.25.
- 김운용, 세계를 향한 도전, 서울 : 연세대 출판부, 2002.
- 金政晩, 南北스포츠 交流와 南北한 平和定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김철, 태권도교육론, 원광대학교 출판국, 1986, p.81.
- 나현성, 한국체육사연구, 1981, p.26.
- 류병관, 태권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무도연구소 학술세미나, 1997, pp.15~26.
- 孟燦燮, 南北跆拳道 交流의 實踐方案,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박한규, 한국 태권도 발달사 고찰,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3.

배영상의 2인, 오늘에 다시 보는 태권도, 대구 : 이문출판사, 2002. p.243.

서석룡, 태권도 경기규칙 개정의 비교·분석, 부경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宋宗郁, 民族和合을 위한 南北體育 交流의 活性化 方案에 관한 研究, 경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7.

유호정, 한국 태권도 발전의 사적 고찰, 전남교대 석사, 1981, (상게서), p. 30.

이규석, 동남아 태권도에 관한 고찰, 서울 : 대한태권도협회(제41호)

이경명, 태권도의 어제와 오늘서울 : 어문각.

이영득, 근대 한국 태권도의 발달과정과 세계화 과정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 석사학위 논문, 1998.

이원국, 태권도 교범, 서울 : 어문각 2002.

이상현, 광복이후 태권도 국제화 과정, 한국체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6.

이종우, 태권도 교본, 서울 : 대한태권도협회, 1975.

양진방, 해방이후 한국 태권도의 발전과정과 그 역사 의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p. 16, pp.18~19.

정찬모, 체육교육자료총서 서울 : 문교부, 1975.

지삼업, 내일의 파도를 넘어서, 부산 : 해원출판사. p.323.

최영렬, 태권도 시범론, 서울 : 보경문화사, 1995.

최종삼, 무도 경기규정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6. p.112.

최홍희, 태권도 지침, 서울 : 정연사, 1968, p.13.

하강호, 조선시대의 태권도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7.

하태은, 광복이후 군 태권도의 발전사 연구, 1999, 3사교 논문집 제49집, PP.701~703.

한권상 이종승, 태권도 지도자론, 원창출판사, 2001.

황 기, 수박도 교본, 서울 : 계당문화사, 1970, p.41.

황춘성, 제24회 서울올림픽 태권도경기의 의의와 향우과제, 계간태권도지 제 66호, 대한태권도협회, 1988.

<http://www.chosun.com/special/0001/sydney/>

<http://www.kbsnews.com/olympic/>

<http://www.koreataekwondo.org/main.asp>

<http://www.kukkiwon.or.kr/>

<http://www.wtf.org/>